

제 11 장

양념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노호영*·박한울**·노수정***·김다정****·김치운*****

1. 양파

- 1.1. 최근 수급 동향
- 1.2. 2024년 상반기 전망
- 1.3. 중장기 전망

4. 대파

- 4.1. 최근 수급 동향
- 4.2. 2024년 상반기 전망
- 4.3. 중장기 전망

2. 마늘

- 2.1. 최근 수급 동향
- 2.2. 2024년 상반기 전망
- 2.3. 중장기 전망

5. 부록

- 5.1. 2000~2023년
양파 수급 동향
- 5.2. 2000~2023년
마늘 수급 동향
- 5.3. 2000~2023년
건고추 수급 동향
- 5.4. 2000~2023년
대파 수급 동향

3. 건고추

- 3.1. 최근 수급 동향
- 3.2. 2024년 상반기 전망
- 3.3. 중장기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 rhy81@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phu87@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nosu303@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swetmug@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kcu5226@krei.re.kr

요 약

1) 2023년 수급 동향

- 2023년 양념채소 재배면적은 2022년 수확 및 출하기 가격 영향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하였다. 건고추는 9% 감소하였으나, 마늘, 양파, 대파는 각각 4%, 3%, 5% 증가하였다. 생산량은 건고추, 대파가 각각 5%, 16% 감소하였으나, 마늘, 양파는 전년 대비 각각 7%, 5% 증가하였다.
- 2023년 양념채소 가격은 건고추, 대파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각각 7%, 33% 상승하였고, 마늘과 양파는 생산량 및 저장량 증가로 각각 21%, 6% 하락하였다. 한편, 양파, 건고추, 대파는 평년보다 가격이 높아 정부수입물량(TRQ, 할당관세)을 도입하였고, 2023년 12월까지 대부분 방출하였다.

2) 2024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 2024년 양념채소류 재배면적은 양파가 2023년산 가격이 평년보다 높아 전년 대비 5% 증가하나, 마늘은 2023년산 가격 하락으로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파의 경우, 조생양파 면적은 전년보다 1% 증가, 중만생종은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늘은 대서종 면적이 전년보다 1%, 남도종은 6%, 한지형은 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건고추는 전년보다 2% 감소하고, 대파는 10% 증가할 전망이다.
- 2024년 상반기 양념채소류 가격은 마늘이 2023년산 재고량 증가로 2023년과 평년 동기보다 낮고, 양파는 2023년 동기보다 낮지만,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마늘, 양파 가격은 2023년산 재고 출하 동향 및 2024년산 생육상황에 따라 변동이 예상된다. 건고추 가격은 2023년산 재고량 감소로 2023년과 평년 동기보다 높지만, 2024년 1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파 상반기 가격은 겨울대파 생육 부진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2023년 및 평년 동기보다 높을 전망이다.
- 중장기 양념채소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양파는 증가 추세이나, 건고추, 마늘, 대파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념채소류 중장기 국내 자급률은 양파가 92% 내외, 마늘과 대파가 각각 84%, 89% 내외 수준을 유지하나, 건고추는 생산량 감소와 수입량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41% 내외로 전망된다. 중장기 전망은 장기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1인당 소비량 감소와 향후 원/달러 환율 및 국제 유가, 그리고 실질 GDP, 소비자물가, GDP 디플레이터 등의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양파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1. 최근 수급 동향

1.1.1. 생산 동향

- 2023년산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전년(2022년산) 대비 5.1% 증가한 121만 6천 톤이었다.
 - 양파 생산량은 당해 작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재배면적이 줄면서 2014년 159만 톤에서 2023년 121만 6천 톤으로 연평균 2.9% 감소하였다.
- 2023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2022년산 저장출하기에 높은 가격이 지속되면서 전년(2022년산) 대비 2.7% 증가한 1만 7,986ha이었다.
 - 최근 10년간 재배면적은 연평균(2014~2023년) 3.1% 감소하였다. 조생종 재배면적은 연평균 4.4% 증가하였으나, 전체 양파 재배면적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만생종 재배면적이 연평균 4.1% 감소하였다.
- 2023년산 양파 단위당 수확량은 전년(2022년산)보다 2.3% 증가한 6,759kg/10a이었다.
 - 4월 말 저온, 5월 초 단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중만생종양파 잎마름병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고온·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보다는 증가하였다.
 - 양파 단수는 산지 작황이 좋아 7,400kg/10a까지 증가했던 해(2019~2021년산)도 있었으나, 평균(2014~2023년) 6,600kg/10a 내외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표 11-1. 2023년산 양파 생산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ha, kg/10a, 톤, %

구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3년산		17,986	6,759	1,215,675
2022년산		17,521	6,605	1,157,223
평년		19,511	7,248	1,414,198
증감률	전년	2.7	2.3	5.1
	평년	-7.8	-6.8	-14.0

주 1) 2020~2023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 결과이며, 2018~2019년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 2022년산 재배면적은 조생종양파 산지폐기면적(194ha)을 포함한 면적 기준

3) 평년은 2018~2022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023년산 품종별 생산량은 조생종양파가 21만 1천 톤으로 전년(2022년산) 대비 2.3% 감소하였으나, 중만생종양파는 100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다.
 - 조생종 재배면적은 2,956ha로 전년보다 0.6% 감소하였고, 단수는 7,137kg/10a로 겨울철 한파 및 조기출하 영향으로 1.7% 감소하였다.
 - 중만생종 재배면적은 1만 5,030ha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고, 단수도 전년보다 3.3% 증가한 6,685kg/10a이었다.

표 11-2. 2023년산 양파 품종별 생산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ha, kg/10a, 톤, %

구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조생종	2023년산	2,956	7,137	210,986
	2022년산	2,975	7,261	216,004
	평년	2,923	7,315	213,824
	증감률	전년	-0.6	-1.7
		평년	1.1	-2.4
중만생종	2023년산	15,030	6,685	1,004,688
	2022년산	14,546	6,471	941,219
	평년	16,588	7,237	1,200,375
	증감률	전년	3.3	3.3
		평년	-9.4	-7.6

주 1) 2020~2023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 결과이며, 2018~2019년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 2022년산 재배면적은 조생종양파 산지폐기면적(194ha)을 포함한 면적 기준

3) 평년은 2018~2022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1.1.2. 수출입 동향

- 2023년산(4~12월) 양파 수출량은 106톤으로 전년(2022년산)과 평년 동기 대비 크게 적은 수준이다. 수출 형태별로는 신선양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양파 수출량은 국내 가격 등락에 따라 증감폭이 큰 편이며,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평년 기준) 수준에 불과하다.

표 11-3. 2023년산 양파 수출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톤, %

구 분	2023년산	2022년산	평년
총수출량	106 (100.0)	1,424 (100.0)	6,698 (100.0)
신선양파	94 (88.7)	1,409 (98.9)	6,692 (99.9)
건조양파	2 (1.6)	13 (0.9)	5 (0.1)
냉동양파	10 (9.7)	2 (0.2)	0 (0.0)
초산조제양파	0 (0.0)	0 (0.0)	1 (0.0)

주 1) 건조양파, 냉동양파, 초산조제양파는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양파로 환산하였으며, 2022년산 7월 이후 신선양파 수출량은 신규분류코드(HS CODE:0703.10.1090) 기준

2) 2023년산은 4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 기준

3) 평년은 2018~2022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4) ()는 양파 형태별 수출량 비중

자료: 관세청

- 2023년산(4~12월) 양파 누적 수입량은 11만 3,902톤(신선양파 수율 환산)으로 2022년산(99,506톤)과 평년(51,797톤) 동기 대비 각각 14.5%, 119.9% 증가하였다.
 - 2023년산 기준 수입 형태별 비중은 신선양파가 76.1%, 건조 13.9%, 냉동 10.0%을 차지하고 있다.
 - 2022년산과 2023년산은 국내산 생산량이 평년 대비 감소함에 따라 정부 수급 안정 대책이 시행되면서 신선양파 TRQ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2022년산 TRQ 및 할당 관세 도입 물량은 9만 3천 톤(7월~익년 2월)이었으며, 2023년산 TRQ 물량(실수요자 배정 및 국영무역)은 6만 5천 톤(7~11월)이었다.
 - 2015년산, 2017년산도 각각 17만 6천 톤, 2만 톤의 신선양파가 TRQ로 도입된 적이 있다.

표 11-4. 2023년산 양파 수입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톤, %

구 분	2023년산	2022년산	평년
총수입량	113,902 (100.0)	138,919 (100.0)	78,995 (100.0)
신선양파	86,707 (76.1)	101,013 (72.7)	36,935 (46.8)
(TRQ실적)	64,503 (56.6)	93,077 (67.0)	-
건조양파	15,830 (13.9)	21,025 (15.1)	27,632 (35.0)
냉동양파	11,356 (10.0)	16,867 (12.1)	14,417 (18.3)
초산조제양파	9 (0.0)	15 (0.0)	11 (0.0)

주 1) 건조양파, 냉동양파, 초산조제양파는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양파로 환산하였으며, 2022년산 7월 이후 신선양파 수입량은 신규분류코드(HS CODE:0703.10.1090) 기준

2) 2023년산은 4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이며, 신선양파에서 TRQ실적은 4~11월 확정치 기준

3) 평년은 2018~2022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4) ()는 양파 형태별 수입량 비중

자료: 관세청

- 2023년산 중국산 양파의 국내 추정 도매가격(기본관세 135% 적용)은 중국 내 시장공급 물량이 증가하여 2022년산(1,721원) 대비 낮은 1,309원/kg 내외로 추정된다.
- 정부 수급안정 대책에 따른 TRQ관세 50% 적용 시, 2023년산 저장출하기(8~11월 평균) 중국산 양파 시장 출하가능가격은 국내산 양파 도매가격보다 낮은 약 850원/kg 내외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2022년산 할당관세(10%) 도입 당시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 11-5. 중국산 양파 국내 판매가격 추정(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원/kg

구 분	2023년산	2022년산	평년
수입산 추정 도매가격(A)	1,309	1,721	1,178
국내산 도매가격(B)	1,231	1,307	904
A/B	106.4	131.6	130.3

주: 수입산 양파 국내 판매가능가격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이며, 2023년산은 4~12월 평균 가격 기준
자료: 관세청,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한국은행, 농업관측센터

1.1.3. 공급 동향

- 2023년산 양파 순 공급량은 생산량이 늘어 전년(2022년산) 대비 5.2% 증가한 134만 7천 톤으로 추정된다.

- 2023년산 수입량은 할당관세 도입으로 수입이 많았던 전년보다는 1.7% 감소하였으나, 국내 생산량이 전년보다 6.3% 증가하여 전체 공급량은 전년보다 늘어났다. 단경기(2024년 1~3월) 양파 수입량과 수출량, 기말재고 등에 따라 2023년산 공급량은 추후 달라질 수 있다.
- 국내 양파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량 증감이 큰 경우에는 수입과 수출이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편이다.
- 2023년산 양파 자급률은 생산량 증가와 수입량 감소로 전년(2022년산) 대비 1.0%p 증가한 90.2%로 추정된다.

표 11-6. 2023년산 양파 공급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천 톤, %, %p

구 분	2023년산(p)	2022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공급량 (f=a+b+c-d-e)	1,347	1,281	1,483	5.2	-9.1
이월재고량(a)	-	-	8	-	-
생산량(b)	1,216	1,143	1,410	6.3	-13.8
수입량(c)	137	139	79	-1.7	72.4
수출량(d)	0	1	7	-91.3	-98.2
기말재고량(e)	5	-	8	-	-37.5
자급률(b/f)	90.2	89.3	95.1	1.0	-4.9

- 주 1) 공급량은 이월재고·생산·수입량 합에 수출·기말재고량을 제외한 수치
 2)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추정하였으며, 이월재고량 및 기말재고량은 정부 비축물량 기준
 3) 수출입량에는 신선양파, 건조양파, 냉동양파, 초산조제양파가 포함되며, 건조, 냉동, 초산조제의 경우 수출을 적용하여 신선양파로 환산
 4) 2022년산 생산량은 조생종양파 산지폐기면적(194ha)을 제외한 생산량 기준
 5) 2023년산 수출입량에서 2024년 1~3월 물량은 평년 수준으로 가정하였으며, 기말재고는 정부 국내산 비축물량(5천 톤)을 기준으로 가정
 6) 평년은 2018~2022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1.1.4. 소비 동향

- 2023년산 국내 1인당 양파 소비량은 2022년산(24.8kg)보다 5.7% 증가하였으나, 평년(28.7kg)보다는 8.5% 감소한 26.2kg으로 추정된다.
- 국내 1인당 양파 소비량은 2000년 19.0kg에서 2009년 28.1kg으로 연평균 4.4%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25kg 내외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표 11-7. 2023년산 양파 1인당 소비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kg, %

2023년산(p)	2022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26.2	24.8	28.7	5.7	-8.5

주 1) 1인당 소비량=(이월재고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기말재고량)/추계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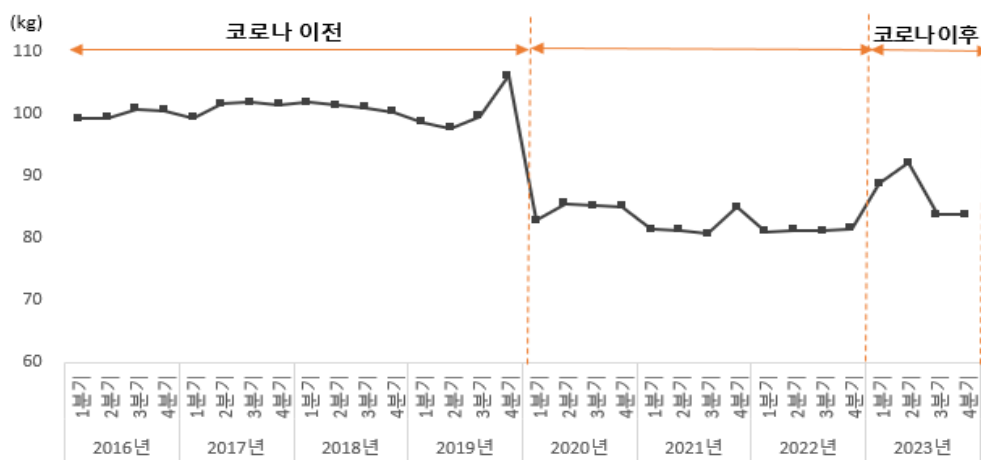
2) 2023년산 수출량, 수입량은 2023년 4~12월 실적치에 2024년 1~3월은 평년 수준 가정

3) 평년 소비량은 2018~2022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자료: 통계청(추계인구),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 KREI 농업관측센터 음식점 패널 33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 월평균(1~9월) 양파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8.7%(81.2→88.3kg)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 발생 이전(2019년, 98.7kg) 동기 대비 10.6% 감소한 수준이다.
 - 2023년 3분기 양파 구매량이 전분기(1~2분기 평균)보다 7.4% 감소하였으며, 4분기(10~12월)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분기(3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체 소비량은 해당연도의 공급이나 가격 동향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는 형태이나, 외식 부문에서의 소비량은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1. 음식점 양파 분기별 월평균 구매량 변화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음식점 패널(330개) 조사 결과(각 년도 분기별 자료)

- 최근 5년간(2019~2023년) 음식점에서의 양파 구입 형태는 피양파(껍질을 벗기지 않은 양파)가 89.6%로 대부분이며, 깎양파는 10.4%로 조사되었다. 구입 형태별 원산지 비중

을 살펴보면 피양파는 국산이 90.2%, 중국산이 9.8%를 차지하였으나, 간양파의 국산과 중국산 비중은 각각 49.4%, 50.6%로 집계되었다.

- 간양파를 구입하는 업체의 경우 주방 내 조리 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하고,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 소매유통채널 판매자료(Point-of-Sale Data, POS 데이터)¹⁾를 활용하여 가구 소비자의 양파 소비 동향을 살펴본 결과, 2023년 양파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하였으며, 코로나 발생 이전(2019년) 동기 대비 25.0% 감소²⁾하였다.
 - 유통채널별로는 온라인(대형마트) 판매량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자들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및 주거지와 근접한 개인슈퍼 등에서의 구매를 늘렸던 소비 추세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8. 2023년 소매업체별 양파 판매량 증감률 변화(1~12월 합계 기준)

단위: %

구 분	전체						
		대형마트 (오프라인)	대형마트 (온라인)	체인슈퍼	조합마트	편의점	개인슈퍼
전년('22년) 동기 대비	-5.4	0.8	-22.0	-12.3	-9.1	-15.0	6.7
코로나 이전('19년) 동기 대비	-25.0	-16.9	10.0	-45.2	-36.8	-95.0	37.5

주 1) 대형마트는 1000평 이상의 매장면적을 가지며, 상시 저가 판매 방식 운영 점포

2) 체인슈퍼는 체인,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에서 가맹점 및 직접 운영하는 점포

3) 조합마트는 농수축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점포(하나로클럽 제외)

4) 편의점은 24시간 오픈하며, 체인 혹은 가맹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

5) 개인슈퍼는 개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식자재마트 제외)

자료: KREI 식량경제연구본부 식품경제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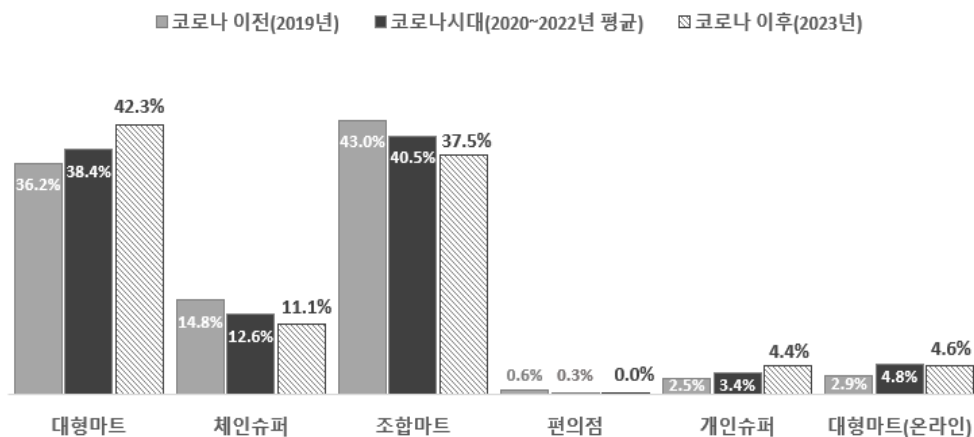
1) KREI 식량경제연구본부 식품경제연구실에서는 ㈜마켓링크가 구축한 데이터(국내 5,800여개 주요 소매 유통업체와 직접계약을 통해 거래내역(판매액, 판매량, 판매가격)을 수집하고 소규모 업체는 표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생성)를 활용하여 품목별·월별 소비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2)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평균(2016~2019년) 102.3수준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95.7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종식 이후인 2023년 지수 값이 점차 회복세를 보여 6~8월 100을 상회하였으나 3개월 만에 다시 100미만으로 하락하였으며, 2023년 11월 97.2, 12월 99.5를 기록하였다(과거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2015년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8.7이었고,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2월에는 97.8이었다).

*CCSI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자 심리 지표로 기준값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 2023년 기준 소매업체별 양파 판매량 비중(소비자 주구입처)을 살펴본 결과, 대형마트가 4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조합마트(37.5%), 체인슈퍼(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경제 부담이 크게 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할인행사가 많은 대형마트 구입 비중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 2. 소매업체별 양파 판매 비중(소비자 주구입처) 변화



자료: KREI 식량경제연구본부 식품경제연구실

- 소비자 조사 결과(KREI 농업관측센터, 2023. 12.)³⁾, 양파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신선도(52.9%)이며, 크기(20.7%), 가격(17.2%), 재배지역(4.8%), 맛(4.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국내산 양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입산(중국산) 대신 국내산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는 전체의 76.8%로 나타나 국내산에 대한 선호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국내산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 문제(71.3%)’ 때문이었으며, 수입산 구매 의향이 있는 소비자(23.2%) 중에서 수입산을 구매하려는 이유로는 ‘가격이 국내산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1.9%로 나타났다.

3) 농업관측센터 전국 소비자 패널 600명을 대상으로 5일간(2023년 12월 19~23일) 양념채소류 소비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1-9. 연도별(2015~2023년) 소비자의 원산지별 양파 구매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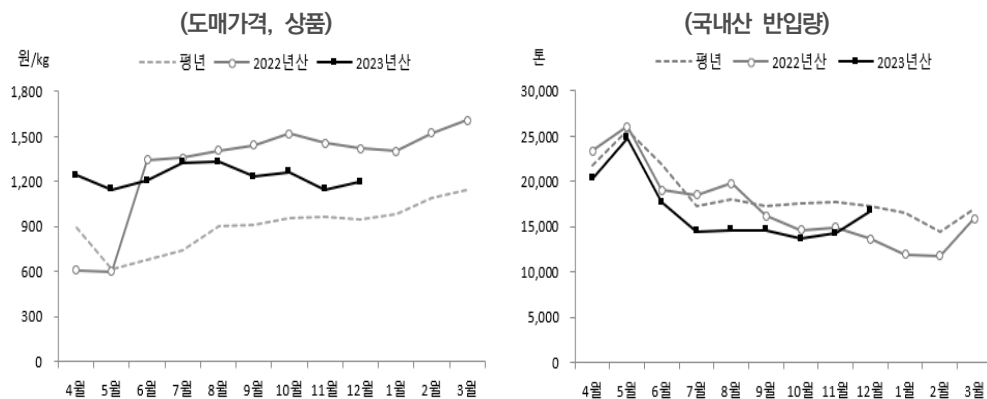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2년	2023년
국내산	58.1	66.4	67.4	68.3	71.9	75.3	76.8
중국산	41.9	33.6	32.6	31.7	28.1	24.7	23.2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가구 소비자 패널 조사치

1.1.5. 가격 동향

- 양파 가격은 작황에 따른 생산량과 저장업체 재고량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지만, 정부 수급대책 시행 여부도 가격 변동 요인으로 작용한다.
- 월별로 보면 4월 조생종 수확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형성된 이후 출하지 확대로 5월에 하락하였다가 저장출하가 가능한 중만생종이 수확되는 6월 이후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 단경기인 익년 3월에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되며, 재고량에 따른 가격변동성도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림 11-3. 양파 월별 도매가격과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2018년 4월~2023년 3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기준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기준)

- 2023년산 양파 가격(4~12월 평균)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2022년산, 1,307원)보다 5.7% 하락하였으나, 평년(884원)보다 39.5% 높은 1,233원/kg(상품)이었다.

- 조생종양파 주 출하기인 4~5월 평균 가격(1,194원/kg)은 2022년산 재고량 감소와 2023년산 조생종양파 조기출하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전년(607원) 및 평년(754원)보다 각각 96.7%, 58.3% 높게 형성되었다.
- 중만생종양파 출하기인 6월 이후 평균 가격은 생산량 증가와 정부 수급대책 영향으로 전년 동기(1,420원)보다 12.4% 하락하였으나, 평년(861원)보다 44.5% 상승한 1,244원/kg이었다.
- 2023년산 수입산 양파 도매가격(4~12월 평균)은 1,103원/kg이었다.
 - 8~11월 수입산 가격은 TRQ 관세(50%) 물량 도입으로 940원 수준이었다.
 - 12월 가격은 민간수입물량이 기본관세(135%)로 시장에 출하되었고, 상대적으로 품위가 양호한 수입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1,237원 내외로 상승하였다.

표 11-10. 2023년산 국내산 양파 월별 도매가격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원/kg(상품), %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2023년산	1,242	1,146	1,207	1,328	1,331	1,234	1,264	1,147	1,197			
2022년산	611	603	1,343	1,356	1,408	1,441	1,517	1,455	1,421	1,401	1,526	1,608
평년	896	612	679	743	907	916	953	968	953	980	1,095	1,141
동락률	전년	103.3	90.0	-10.1	-2.1	-5.4	-14.4	-16.7	-21.2	-15.8		
	평년	38.6	87.1	77.9	78.7	46.8	34.7	32.6	18.5	25.7		

주: 평년 가격은 2018년 4월~2023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1.1.6. 중국 산지 동향

- KREI 농업관측센터 중국 해외 모니터 조사 결과, 2023년산 중국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전년(2022년산)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중국 양파 재배면적은 2022년산 산지 가격 강세, 해외 시장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 일부 지역(산둥성 등)에서 생육 후기 고온 피해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인 작황이 양호하여 단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2023년산 중국 양파 산지 가격은 시장공급물량이 증가하면서 전년(2022년산)보다 낮게 형성되었으나, 일본을 제외한 주요 수출국(베트남, 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의 수요 증가로 인해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 2024년산 중국 양파 재배면적은 양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023년산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4년산 운남성 재배면적은 2023년산과 비슷하겠으나, 산동성 재배(의향)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1.2. 2024년 상반기 전망

1.2.1. 2023년산 양파 재고량 추정

- 2023년산 양파 입고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2022년산) 대비 3.3% 많으나, 평년 대비 7.4% 적은 63만 5천 톤 수준이었다.
- KREI 농업관측센터 표본 저장업체 조사 결과(2023. 12. 20.), 2023년산 저장양파 누적(8~12월) 출고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 적은 35만 3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 출고 초기(8~9월)에는 상품성 저하(병해 영향)에 따른 부패율이 높아 출고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많았다.
 - 그러나 정부 수급 대책 시행(TRQ도입), 소비 부진 장기화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출하를 늦추려는 업체들이 많아 누적 출고량은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 12월 말 기준, 부패율을 고려한 2023년산 양파 재고량은 출고량 감소로 전년보다 10.9% 많은 24만 1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 2024년 1~3월 양파 가격은 2023년산 저장양파 재고량이 많고, 정부 비축물량(수입산 1만 톤, 국내산 5,800톤)도 있어 추가 상승 없이 현 수준(1월 가격)에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11. 2023년산 양파 재고량 추정(2023년 12월 말 기준)

단위: 톤, %

구 분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23년산		634,760	352,781	241,433
2022년산		614,554	361,582	217,616
평년		685,470	388,233	254,669
증감률	전년 대비	3.3	-2.4	10.9
	평년 대비	-7.4	-9.1	-5.2

주 1) 2022년산, 2023년산 입고량은 국내산 정부 구매물량이 포함된 수치

2)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23년산 14.4%, 2022년산 14.0%, 평년 14.3%)을 적용한 국내산 기준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2023년 12월 20일 표본 저장업체 조사치

1.2.2. 2024년산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 2024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2023년산 수확기(4~7월)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고, 대체재(마늘) 가격도 하락하여 전년(2023년산) 대비 4.5% 증가한 18,789ha로 조사되었다.
- 품종별로는 조생종과 중만생종 재배면적이 전년(2023년산) 대비 각각 1.4%,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생종양파 주산지인 제주지역은 마늘에서의 작목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2023년산 보다 증가하였으나, 전남은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만생종양파 재배면적은 대부분 2023년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파 최대 주산지인 전남지역 재배면적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크지 않았다.

표 11-12. 2024년산 양파 재배면적 추정

단위: ha, %

구 분		조생종	중만생종	전체
2024년산		2,997	15,792	18,789
2023년산		2,956	15,030	17,986
평년		2,917	15,290	18,207
증감률	전년 대비	1.4	5.1	4.5
	평년 대비	2.8	3.3	3.2

주 1) 2020~2023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 결과, 2019년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평년은 2019~2023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KREI 농업관측센터 2023년 11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표 11-13. 2024년산 양파 지역별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 분	경기·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청	전체
조생종	-	2.7	7.7	-0.2	1.7	3.3	0.0	1.4
중만생종	7.3	7.8	7.6	2.3	3.9	0.7	6.8	5.1
전체	7.3	7.5	7.6	1.8	3.8	2.6	6.8	4.5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2023년 11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정식 이후 12월 말까지의 2024년산 양파 생육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4년산 육묘 생육 부진으로 두 번 육묘한 농가가 많아 정식시기가 전년 대비 일주일가량 지연되었고, 기계화 정식을 증가 추세와 정식기(10~11월) 기상여건 양호 등으로 늦게까지 정식이 이루어지면서 정식기간도 평년에 비해 길었다.
 - 12월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해 동해(언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인 생육상황은 초기 생육이 양호했던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2.3. 2024년산 양파 생산량 전망

- 최근 수확기 기상변화에 따른 단수 변동성이 커 직전 5개년(2019~2023년산) 품종별 평년 단수를 2024년산 양파 추정 재배면적에 적용하여 생산량을 전망하였다.
- 2024년산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2023년산 및 평년 대비 각각 11.4%, 3.2% 증가한 135만 4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품종별로는 조생종양파 생산량이 22만 톤, 중만생종양파 113만 4천 톤 내외로 예상된다.
- 상반기 양파 전체 예상 공급량⁴⁾은 2023년 동기 대비 4.0% 많으나, 평년과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2023년산 저장양파 출고 동향, 정부 비축물량 방출, 수입량, 조생종 양파 생육상황 등에 따라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4) 2023년산 12월 말 기준 재고량, 1~5월 추정 수입량, 2024년산 조생종양파 예상 생산량을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표 11-14. 2024년산 양파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 톤, %

구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4년산		18,789	7,208	1,354
2023년산		17,986	6,759	1,216
평년		18,207	7,208	1,312
증감률	전년 대비	4.5	6.6	11.4
	평년 대비	3.2	-	3.2

주 1) 2020~2023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 결과, 2019년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평년은 2019~2023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KREI 농업관측센터

1.3. 중장기 전망

- 양파 재배면적은 2024년산 18,789ha에서 2033년산 19,390ha 수준으로 연평균 0.4% 증가가 예상되어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 대체재(마늘 등) 재배면적이 동기간(2024~2033년) 감소함⁵⁾에 따라 양파 재배면적은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생산비 상승 등으로 증가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양파 생산량은 면적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영향으로 2024년산 135만 4천 톤에서 2025년산 118만 5천 톤 내외로 줄겠으나,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2033년산 생산량은 129만 5천 톤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향후 10년간(2024~2033년산) 양파 수입량은 국내산 양파 생산량에 영향을 받겠으나, 10만 톤 내외에서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다.
- 양파 총 공급량은 2024년산 147만 9천 톤에서 2025년산 130만 9천 톤 내외로 감소한 이후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로 인해 2033년산 139만 9천 톤 수준까지 늘 것으로 예상되며, 자급률은 92%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5) 마늘 중장기 수급 전망 내용 참조

표 11-15. 양파 종장기 수급 전망(연산기준: 4월~익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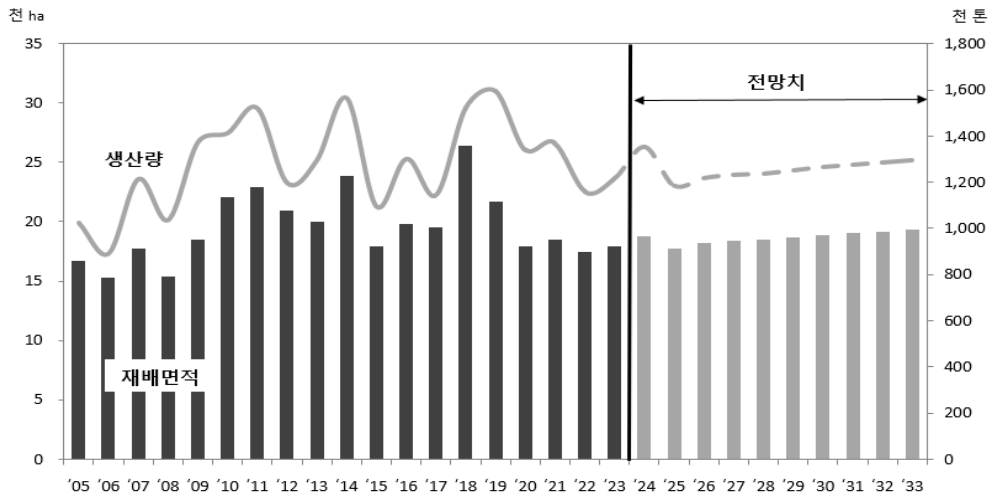
구 분	단위	2023	전망		
			2024	2028	2033
재배면적	ha	17,986	18,789	18,553	19,390
총공급량(A=B+C)	천 톤	1,357	1,479	1,352	1,399
국내 생산량(B)	천 톤	1,216	1,354	1,239	1,295
순수입량(C=D-E)	천 톤	138.2	117.3	106.9	97.3
수입량(D)	천 톤	138.3	124.6	113.6	104.2
수출량(E)	천 톤	0.1	7.2	6.7	6.9
자급률(B/A)	%	89.6	91.6	91.6	92.6

주 1) KASMO모형에서 수출입량은 신선, 건조, 냉동, 초산조제 외에 혼합조미료에 사용된 양도 가중계산되어 포함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수출입동향 및 공급 동향)한 수치와는 상이하며, 이로 인해 계산된 공급량과 자급률에도 차이 발생

2) 2023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이며, 2024년 재배면적은 농업관측센터 조사치 기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통계청

그림 11-4. 양파 생산 동향 및 종장기 전망(연산기준: 4월~익년 3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통계청

02

마늘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1. 최근 수급 동향

2.1.1. 생산 동향

- 2023년산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늘어 전년(2022년산) 대비 7.4% 증가, 평년보다 6.3% 감소한 31만 2,438톤이었다.
 - 마늘 생산량은 전년도 가격과 기상 여건에 따라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2014~2023년산) 연평균 1.4% 감소하였다.
- 2023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022년산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2022년산) 대비 4.0% 증가한 2만 4,629ha이었다.
 - 재배면적은 높은 생산비 부담⁶⁾과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5년 2만 1천 ha로 1980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18년 2만 8천 ha까지 증가한 이후 전년산 수확기 및 대체재 가격에 따라 2만 5천 ha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23년 기준)은 한지형 18.6%, 난지형 81.4%이다. 난지형 중 대서종 비중은 51.8%, 남도종은 29.6%이며, 2018년을 기점으로 두 품종의 비중이 역전되었다.
 - 남도종은 주산지인 제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작목이 전환되고 대서종으로 품종이 교체되면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5.8% 감소하였으며, 대서종은 6.4% 증가하였다.

6) 마늘 생산비(통계청, 「농축산물생산비조사」)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4.7%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노동비(연평균 3.7% 증가), 종구비(5.8% 증가), 비료비(4.8% 증가)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표 11-16. 2023년산 마늘 생산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ha, kg/10a,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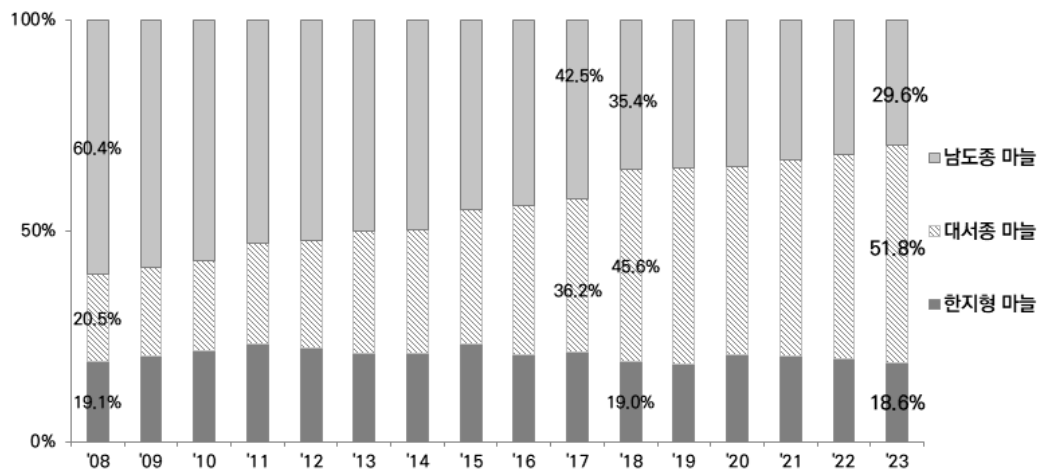
구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3년산		24,629	1,269	312,438
2022년산		23,686	1,228	290,824
평년		25,625	1,301	333,508
증감률	전년	4.0	3.3	7.4
	평년	-3.9	-2.5	-6.3

주 1) 2018~2020년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021~2023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2) 평년은 2018~2022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그림 11-5. 마늘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 변화(연산기준: 6월~익년 5월)



자료: 농업관측센터

- 2023년산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1,269kg/10a으로 전년(2022년산) 대비 3.3% 증가, 평년 대비 2.5% 감소하였다.
 - 마늘 구 비대기 및 수확기에 큰 일교차와 집중호우로 병해와 생리장해가 발생하였으나, 겨울철 냉해와 생육기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2022년산보다는 단수가 증가하였다.
 - 마늘 10a당 수확량은 재배기술 향상, 수확량이 많은 대서종 면적 증가 등으로 2010년 이후 1,300kg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2년간(2022~2023년산) 수확량은 생육기 및 구 비대기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1,200kg대로 하락하였다.

- 2023년산 품종별 생산량은 한지형이 전년(2022년산)과 비슷한 3만 9,764톤, 난지형은 전년(2022년산) 대비 8.6% 증가한 27만 2,674톤이었다.
 - 한지형 재배면적은 4,581ha로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고, 단수는 868kg/10a로 전년보다 1.1% 증가하였다.
 - 난지형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2만 ha, 단수도 전년보다 3.2% 증가한 1,360kg/10a이었다.
 - 난지형 중 대서종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증가하여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4.0%, 3.7% 증가하였다. 남도종 생산량은 단수가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으나, 재배면적이 줄어 2022년산에 비해 1.5% 감소, 평년보다는 21.6% 감소하였다.

표 11-17. 2023년산 마늘 품종별 생산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ha, kg/10a, 톤, %

구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한지형	2023년산	4,581	868	39,764
	2022년산	4,628	858	39,731
	평년	5,013	870	43,633
	증감률	전년	1.1	0.1
		평년	-0.3	-8.9
난지형	2023년산	20,048	1,360	272,674
	2022년산	19,058	1,318	251,092
	평년	20,612	1,406	289,876
	증감률	전년	3.2	8.6
		평년	-3.3	-5.9

주 1) 2018~2020년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021~2023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2) 평년은 2018~2022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2.1.2. 수출입 동향

- 2023년산(6~12월) 마늘 수출량은 평년 동기와 비슷한 499톤으로, 전년(2022년산) 동기(98톤)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 수출 확대 노력⁷⁾ 등으로 2023년산 마늘 수출량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최근 5개년 평균) 수준이다.
 - 수출 형태별로는 깎마늘이 418톤으로 가장 많고, 건조마늘 62톤, 초산조제마늘 16톤 순이었다.
 - 과거 수출량은 100여 톤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2019~2020년 수출물류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약 3천 톤까지 증가하였다. 2019년을 기점으로 통마늘에서 깎마늘, 건조마늘로 수출 형태가 전환되면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2023년산 마늘 수출국은 미국이 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러시아와 베트남이 각각 3%, 일본과 싱가포르가 각각 2%로 나타났다.

표 11-18. 2023년산 마늘 수출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톤, %

구 분	2023년산	2022년산	평년
총 수출량	499 (100.0)	208 (100.0)	772 (100.0)
깎마늘	418 (83.7)	74 (35.7)	610 (79.1)
통마늘	1 (0.1)	6 (3.0)	54 (7.0)
냉동마늘	2 (0.5)	20 (9.5)	27 (3.4)
건조마늘	62 (12.5)	90 (43.4)	62 (8.0)
초산조제마늘	16 (3.2)	18 (8.4)	20 (2.5)

주 1) 수출량은 깎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에 수율을 적용하여 통마늘로 환산한 수치

2) 2023년산 수출량은 2023년 6~12월 누적 수출량이며, 평년은 2018년 6월~2023년 5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3) ()는 마늘 형태별 수출량 비중

자료: 관세청

7) 경북신문(2023.11.30.), “영천마늘 철저한 사전 준비로 미국 수출길 열다” <<http://www.kbsm.net/news/view.php?idx=413813>>. 농수축산신문(2023.11.17.), “명품 홍성마늘, 해외 수출길 올라” <<https://www.af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386>>.

- 중국 산지가격이 상승하였고 국내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2023년산(6~12월) 마늘 수입량은 2022년산(54,891톤)과 평년(28,019톤) 동기 대비 각각 59.0%, 19.7% 감소한 2만 2,491톤이었다.
- 수입 형태별로는 냉동마늘이 1만 9,936톤으로 가장 많았고, 초산조제마늘 1,899톤, 통마늘 284톤, 깎마늘 224톤, 건조마늘 149톤 순으로 집계되었다. 국내 생산량 증가로 2023년 TRQ(저율관세할당량) 도입 실적이 없어 통마늘 수입은 전년 동기(15,827톤)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 냉동마늘은 관세가 낮고(27%) 고정적인 외식업체 소비로 수입량이 매년 3~4만 톤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3년산은 2022년산과 평년 동기 대비 각각 44.9%, 5.2% 감소하였다. 중국 마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국내산 저품위 물량 위주로 업체 소비가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 마늘 수입량은 국내 가격 등락에 따라 증감하는 편이며, 국내 공급 부족 시기를 제외하고 5~6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수입량은 국내산 가격이 높아 TRQ 도입과 냉동마늘 수입이 증가하면서 7만 8천 톤까지 증가하였다.

표 11 - 19. 2023년산 마늘 수입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톤, %

구 분	2023년산	2022년산	평년
총 수입량	22,491 (100.0)	78,228 (100.0)	52,531 (100.0)
깎마늘	224 (1.0)	803 (1.0)	568 (1.1)
통마늘	284 (1.3)	18,193 (23.3)	6,584 (12.5)
냉동마늘	19,936 (88.6)	55,600 (71.1)	41,271 (78.6)
건조마늘	149 (0.7)	243 (0.3)	370 (0.7)
초산조제마늘	1,899 (8.4)	3,389 (4.3)	3,739 (7.1)

주 1) 수입량은 깎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에 수율을 적용하여 통마늘로 환산한 수치

주 2) 2023년산 수입량은 2023년 6~12월 누적 수입량이며, 평년은 2018년 6월~2023년 5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주 3) ()는 마늘 형태별 수입량 비중

자료: 관세청

- 마늘이 일부 포함된 기타소스와 혼합조미료의 2023년산(6~12월) 수입량은 각각 2,734톤(2022년산 동기 대비 8.2% 증가), 118톤(2022년산 동기 대비 0.7% 증가)이었다.⁸⁾
 - 판매·유통이 편리하고 조리에 활용하기 쉬운 다양한 종류의 소스류가 수입되면서 기타 소스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5.2% 증가하였다.
- 2023년산 중국산 통마늘 국내 추정 도매가격은 국내산 도매가격(통마늘 상품 기준)보다 높은 6,900원/kg(기본관세 360% 적용)으로 추정된다.
 - 2023년산 국내산 마늘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중국산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전년과 평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2023년산 중국산 냉동마늘 국내 추정 도매가격은 2022년산(1,802원/kg)과 평년 대비 각각 13.9%, 23.5% 높고, 국내산 통마늘 도매가격(중품 기준)의 54% 수준인 kg당 2,100원 내외로 추정된다(기본관세 27% 적용).

표 11-20. 중국산 통마늘과 냉동마늘 국내 판매가격 추정(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원/kg, %

구 분	통마늘			냉동마늘		
	2023년산	2022년산	평년	2023년산	2022년산	평년
중국산 국내 추정 도매가격(A)	6,912	5,041	4,637	2,052	1,802	1,662
국내산 도매가격(B)	4,408	6,981	5,560	3,821	6,441	4,893
A/B	156.8	72.2	83.4	53.7	28.0	34.0

주 1) 중국산 마늘의 국내 추정 도매가격은 수입가격에 유통이윤 10%를 적용
 2) 2023년 6~12월은 확정치 기준, 2024년 1~5월은 추정치
 3) 중국산 통마늘 추정시 국내산 도매가격은 통(피)마늘 상품 기준, 2023년산은 6~12월 평균 가격
 4) 중국산 냉동마늘 추정시 국내산 도매가격은 통(피)마늘 중품 기준, 2023년산은 6~12월 평균 가격
 자료: 관세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은행, 농업관측센터

8) 기타소스의 HS code는 2103-90-9090이며, 혼합조미료 HS code는 2103-90-9030임. 기타소스와 혼합조미료 수입량은 수율을 적용하여 통마늘로 환산한 수치임.

2.1.3. 공급 동향

- 2023년산 마늘 공급량은 36만 1천 톤 내외로 전년(2022년산) 대비 1.5%, 평년 대비 7.4% 감소하였다.
 - 단경기(2024년 1~5월) 마늘 수입량과 수출량, 기말재고 등에 따라 2023년산 공급량은 추후 달라질 수 있다.
 - 마늘 공급량은 2013년산 생산량이 증가하여 45만 톤까지 확대된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7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 2023년산 마늘 자급률은 생산량이 증가했고 수입량은 감소하여 전년(2022년산) 대비 7.2%p 증가한 86.6%로 추정된다.

표 11-21. 2023년산 마늘 공급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천 톤, %, %p

구 분	2023년산(p)	2022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공급량 (f=a+b+c-d-e)	361	366	389	-1.5	-7.4
이월재고량(a)	3	-	4	-	-37.7
생산량(b)	312	291	336	7.4	-7.0
수입량(c)	49	78	53	-37.4	-7.8
수출량(d)	0.5	0.2	0.8	161.9	-29.3
기말재고량(e)	3	3	4	11.1	-15.9
자급률(b/f)	86.6	79.4	86.3	7.2	0.3

- 주 1) 공급량은 이월재고량·생산량·수입량 합에 수출량·기말재고량을 제외한 수치
 2)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추정
 3) 수출입량은 간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에 수율을 적용하여 통마늘로 환산한 수치
 4) 2021~2023년산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이며, 2022~2023년산 기말재고는 정부비축물량 포함하여 평년 수준으로 가정
 5) 2023년산 수출량과 수입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
 6) 평년은 2018년 6월~2023년 5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2.1.4. 소비 동향

- 2023년산 1인당 마늘 소비량은 2022년산(6.5kg)과 평년(6.9kg) 대비 각각 2.4%, 7.9% 감소한 6.3kg으로 추정된다.
 - 1인당 소비량은 김치 소비 감소 등 식생활 변화로 2000년(9.2kg) 이래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6년산 생산량이 감소하여 마늘 소비량은 6.1kg까지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6~7kg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23년산 난지형 마늘 1인당 소비량 비중은 생산량이 증가(전년 대비 8.6%)하였으나, 수입량이 감소하여 전년(2022년산) 대비 0.3%p 감소한 89.6%로 추정된다.
 - 난지형 마늘 생산 점유율이 점차 늘고 있지만, 고정 수요처가 있어 한지형 마늘 소비량은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1-22. 2023년산 마늘 1인당 소비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구 분	2023년산(p)	2022년산	평년
1인당 소비량(kg)	6.3	6.5	6.9
한지형(%)	10.4	10.1	10.5
난지형(%)	89.6	89.9	89.5
생산량(천 톤)	312.4	290.8	333.5
한지형(%)	12.7	13.7	13.1
난지형(%)	87.3	86.3	86.9

주 1) 1인당 소비량은 국내 생산량(중구용 제외)과 수입량, 이월재고량 합계에서 수출량과 기말재고량을 제외한 순 공급량에서 추계인구를 나누어 1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
 2) 2018~2020년산 생산량은 통계청 조사 결과, 2021~2023년산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3) 2023년산 소비량에서 활용된 수출량과 수입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
 4) 평년 소비량은 2018년 6월~2023년 5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기준 평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 가구 소비자의 마늘 소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소매유통채널 판매자료(Point-of-Sale Data, POS 데이터)⁹⁾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가구 내 마늘 판매량은 전년(2022년) 동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연구본부 식품경제연구실에서는 '2023년 소비정보분석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주요 소매 유통업체의 판매 데이터 수집 및 소규모 업체 대상 표본조사를 통해 POS(Point-of-Sales)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판매액과 판매량 등의 POS 데이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채널로 구분되며, 오프라인 채널은 전국 광역사도의 대형마트, 체인슈퍼, 조합마트, 편의점, 개인슈퍼의 판매 데이터를, 온라인 채널은 대형마트의 판매 데이터를 포함함. POS 데이터 상 마늘에는 원물형태인 통마늘 뿐만 아니라 깎마늘, 저민(편)마늘, 다진마늘, 냉동마늘을 포함하고 있음.

기 대비 6.3%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16.1% 감소하였다.

- 점차 코로나19 이전 생활로 복귀하면서 전년에 비해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2019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 2023년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¹⁰⁾는 97.3로 2022년(95.7)에 비해서는 회복되었지만, 2019년(99.2)과 평년(99.2)에 비해서는 낮았다.

표 11-23. 2023년 소매업체 마늘 월별 판매량 증감률 변화

단위: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9년 대비 증감률	-18.5	-29.5	-7.9	-16.9	-15.8	-10.1	-19.0	-28.6	-6.6	-23.5	-5.2	-18.2	-16.1
2022년 대비 증감률	-12.1	-7.3	0.6	4.7	26.4	28.8	8.7	5.5	13.9	-3.2	1.0	-1.9	6.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연구본부 식품경제연구실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매업체별 판매 비중(2023년 기준)은 조합마트가 4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형마트(36.7%), 체인슈퍼(10.9%), 개인슈퍼(8.6%), 온라인(3.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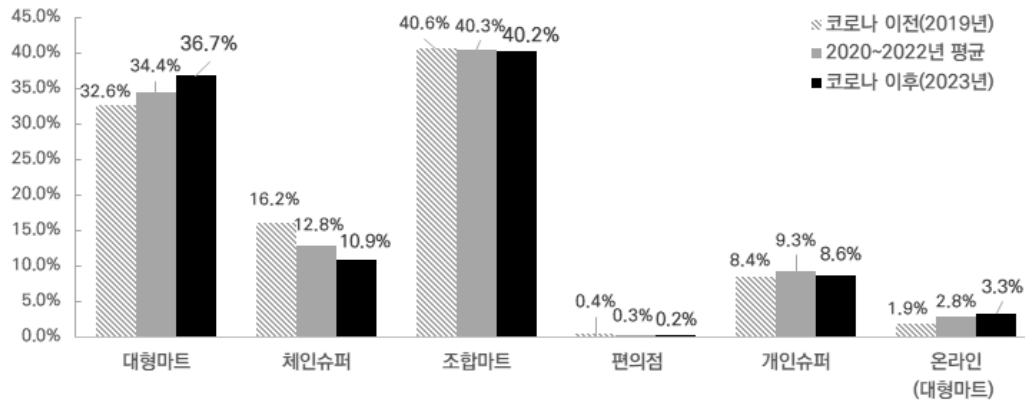
-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판매 비중은 2019년 32.6%에서 2023년 36.7%로 증가하였다.

- 온라인(대형마트)을 통한 판매도 2019년 1.9%에서 2023년 3.3%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늘었고, 이후에도 비대면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언택트(Untact) 소비¹¹⁾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0) 소비자심리지수(CCSI, 통계청)는 주요 개별지수(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등 6개)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자심리지표임. 소비자심리지수의 장기평균치를 100(기준값으로 2003년 1월부터 2015년까지의 장기평균을 의미)으로 하여,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 시각이,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인 시각이 우세하다고 해석됨.

11) 언택트(Untact)란 '접촉하다'는 contact에 부정적인 의미인 'un'을 합성한 말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사람과의 접촉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패턴을 의미함.

그림 11-6. 소매업체별 마늘 판매 비중(소비자 주 구입처) 변화



- 주 1) 대형마트는 1천 평 이상의 매장 면적을 가지며, 상시 저가 판매 방식 운영 점포
 2) 체인슈퍼는 체인,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에서 가맹점 및 직접 운영하는 점포
 3) 조합마트는 농수축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점포(하나로클럽 제외)
 4) 편의점은 편리함(convenience)을 개념으로 도입된 소형 소매점포로 체인 혹은 가맹의 형태로 운영
 5) 개인슈퍼는 개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식자재마트 제외)
 6) 오프라인(대형마트, 체인슈퍼, 조합마트, 편의점, 개인슈퍼)과 온라인(대형마트) 판매량 합계를 활용하여 소매업체별 판매 비중을 산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연구본부 식품경제연구실

• 소비자 조사 결과(KREI 농업관측센터, 2023. 12.)에서는 마늘 형태별로 구매처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 수확기나 김장철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주대마늘과 통마늘은 재래시장과 가족 및 지인을 통해 구매하는 비중이 각각 57.4%, 49.5%로 높게 조사되었다.
- 깎마늘과 다진마늘은 필요할 때마다 소량씩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 접근성이 좋고 소포장 구매가 용이한 대형 및 소매유통업체를 통해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쇼핑몰, TV 홈쇼핑 등을 통한 구매는 2020년 1.7%에서 2023년 6.7%로 증가¹²⁾하였으며, 깎마늘과 다진마늘에서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깎마늘 온라인 구매 점유율은 2020년 1.6%에서 2023년 6.0%로, 다진마늘은 2.2%에서 16.6%로 증가하였다.

12) 온라인을 통한 농축수산물 거래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1~11월)은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67.3% 증가, 2022년 대비 8.4% 증가함(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표 11-24. 마늘 형태별·구매처별 구매 점유율(2023년 기준)

단위: %

구 분	주대마늘	통마늘	깐마늘	다진마늘	평균
농가 직거래	15.8	12.6	1.2	3.5	8.3
대형유통업체(오프라인)	12.6	17.9	41.2	38.5	27.5
채래 및 도매시장	38.4	26.9	13.1	13.6	23.0
부모, 친지나 지인	19.0	22.6	3.6	2.4	11.9
소매유통업체	5.8	7.9	28.6	19.5	15.5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1.0	3.2	6.0	16.6	6.7
직거래매장 또는 로컬푸드매장	5.8	8.4	6.0	4.1	6.1
기타	1.6	0.5	0.3	1.8	1.0

주: 대형유통업체는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소매유통업체는 슈퍼마켓, 개인슈퍼 등을 포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가구 소비자 패널 조사치(2023. 12.)

- KREI 농업관측센터 음식점 패널 330개를 대상으로 외식부문 소비실태조사¹³⁾를 실시한 결과, 2023년 마늘 월평균 구매량은 14.1kg으로 전년(2022년) 대비 2.8%,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21.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체 소비량은 해당연도의 공급이나 가격 동향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는 형태이나, 외식 부문에서의 소비량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5. 음식점 마늘 분기별 월평균 구매량 변화

단위: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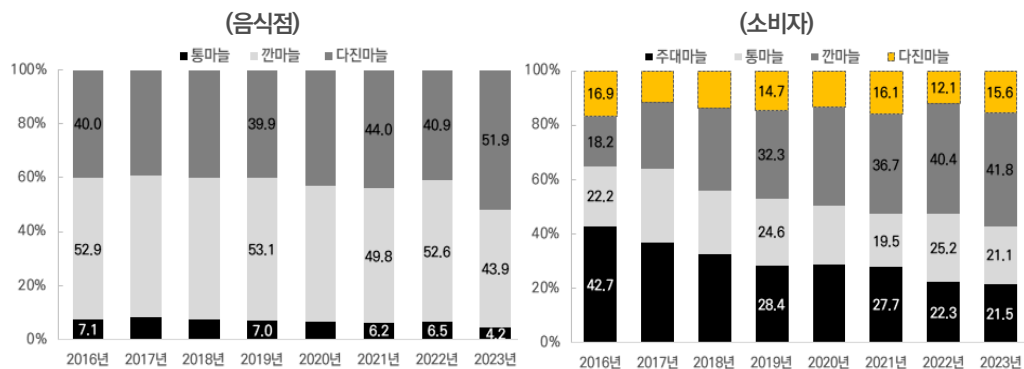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3년	15.6	13.7	13.5	13.6(p)
2022년	14.3	14.4	14.5	14.7
2019년(코로나 발생 이전)	18.2	18.7	17.6	17.1

주: 2023년 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잠정치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 패널(330개) 조사 결과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는 외식부문에서의 농축산물 소비현황 및 구매 의향을 파악하고자 서울 지역 규모별·업종별(한식, 중식, 양식 등) 특성을 고려하여 패널을 구성, 음식점의 주요 농축산물 소비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하여 데이터를 축적·제공하고 있음.

- 음식점에서는 주로 깐마늘과 다진마늘 형태로 마늘을 구매(2023년 기준 95.8%)하고, 통마늘의 경우 구매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여 2023년 4.2%까지 축소되었다.
 - 원물 형태인 통마늘보다는 전처리 과정(껍질을 제거하고 세척, 분쇄하는 등)을 거친 가공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 다진마늘 형태의 구매 비중은 2016년 40.0%에서 2023년 51.9%로 증가하였고, 기존 구매 비중이 50% 이상이었던 깐마늘은 2023년 43.9%로 감소하였다. 깐마늘과 비교해 조리 시 바로 활용이 가능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다진마늘로 구매가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 소비자들은 주로 깐마늘 형태로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대마늘은 2023년 21.5%까지 감소하였고, 깐마늘 구매 비중은 41.8%로 증가하였다.
 - 음식점에서의 마늘 형태별 구매 결과와 달리, 소비자들은 다진마늘보다는 깐마늘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7. 마늘 형태별 구매 비중 변화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 패널(330개) 조사 결과, 가구 소비자 패널 조사치

- 음식점에서의 마늘 원산지별 구매 비중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국내산을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별로 2023년 중국산 통마늘 구매 비중이 35.4%로 전년(2022년) 대비 증가하였고, 깐마늘과 다진마늘은 전년 대비 각각 4.2%p, 4.6%p 감소하였다.
 - 2023년 3분기 음식점의 중국산 구매 비중은 2023년산 중국 햇마늘 생산량 감소로 2분기 대비 7.0~11.7%p 줄었다.

표 11-26. 음식점 마늘 원산지별 구매 비중

단위: %

구 분	통마늘		간마늘		다진마늘	
	국내산	중국산	국내산	중국산	국내산	중국산
2023년	64.6	35.4	64.5	35.5	61.9	38.1
2022년	86.5	13.5	60.4	39.6	57.4	42.6
평년	81.3	18.7	57.9	42.1	58.0	42.0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이며, 2022년은 1~4분기 평균, 2023년은 1~3분기 평균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 패널(330개) 조사 결과

- 가정 소비용으로 마늘을 구매할 때 소비자의 86.7%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식 시에는 소비자의 39.1%가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정 소비용으로 구매할 때보다 원산지를 적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의 수입산 마늘 사용이 신경은 쓰이나, 어쩔 수 없이 먹는다는 소비자 비중은 60.4%로 절반을 넘겼다.
-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은 ‘국내산 여부(34.0%)’이며, ‘모양 및 신선도(20.3%)’, ‘가격(16.7%)’, ‘생산지역(11.9%)’, ‘품종(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향후 국내산 마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입산(중국산) 대신 무조건 국내산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가 전체의 52.8%로 조사되었다. 2023년산 마늘 가격 하락으로 2022년(51.6%)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평년(65.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 국내산 마늘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식품 안전성(67.8%)’ 때문이며, 다음으로 ‘품질이나 맛(17.3%)’, ‘단순 국내산 선호(10.1%)’ 순으로 나타났다.
 - 수입산을 구매하려는 이유로 ‘가격이 국내산보다 낮아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70.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 11-27. 국내산 마늘 구매 의향 충성도 변화

단위: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내산	60.2	68.6	68.6	76.0	51.6	52.8
중국산	39.8	31.4	31.4	24.0	48.4	47.2

주: 구매 의향 충성도는 국내산과 중국산 마늘의 품질이 동일한 상황에서 중국산 마늘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국내산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 구매 의향 비중을 의미
 자료: 농업관측센터, 가구 소비자 패널 조사치

2.1.5. 가격 동향

- 2023년산 마늘 상품 가격(6~12월)은 국내산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년(2022년산)과 평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이다.
 - (난지형 마늘) 6월 난지형 마늘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34.4%, 평년 대비 12.6% 하락한 4,620원/kg이었으며, 12월까지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 (간마늘) 6~7월 간마늘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25.5% 하락하였으나, 평년보다는 2.4% 상승한 6,534원이었다. 2023년산 생산량이 많고 저품위 가져장마늘 출하가 지속되면서 8월 이후에는 평년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장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이후 정부 수급 대책¹⁴⁾과 냉동마늘 등 민간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하락폭은 둔화되었다.

표 11-28. 2023년산 마늘 월별 도매가격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원/kg(상품), %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난지형	2023년산	4,620	4,322	4,324	4,324	4,398	4,444	4,424					
	2022년산	7,039	7,233	7,059	7,034	7,009	7,054	7,051	7,000	7,008	7,038	7,030	6,221
	평년	5,285	5,384	5,524	5,612	5,635	5,619	5,644	5,650	5,631	5,627	5,658	5,451
마늘	등락률	전년	-34.4	-40.2	-38.7	-38.5	-37.3	-37.0	-37.3				
	평년		-12.6	-19.7	-21.7	-23.0	-22.0	-20.9	-21.6				
간마늘	2023년산	6,470	6,597	6,502	6,585	6,766	6,826	6,820					
	2022년산	8,773	8,778	8,550	8,340	8,198	8,183	8,175	8,135	8,172	8,159	7,894	6,736
	평년	6,324	6,433	6,865	6,808	6,835	7,014	6,986	6,883	6,934	7,037	7,014	6,622
	등락률	전년	-26.2	-24.8	-24.0	-21.1	-17.5	-16.6	-16.6				
	평년		2.3	2.6	-5.3	-3.3	-1.0	-2.7	-2.4				

주 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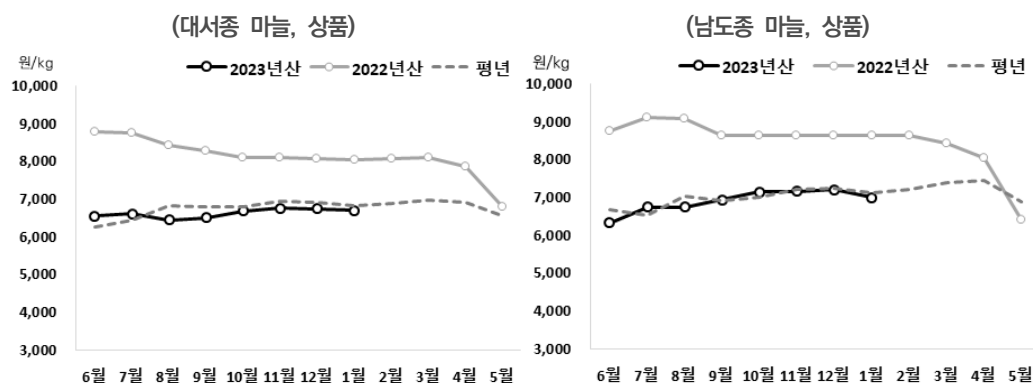
2) 평년 가격은 2018년 6월~2023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기준 평균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 2023년산 마늘 수확기 잦은 강우로 품위 저하품 발생이 증가하면서 생산량 증가폭보다 가격 하락폭이 컸음. 이에 정부는 국내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대책 일환으로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저품위 마늘 출하금지 사업과 농협 비계약재배물량(정상품) 추가 구매 지원 등을 실시함.

- 깐마늘 품종별 도매가격 추이를 보면, 2023년산 대서종 상품 평균 가격(6~12월)은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년(2022년산) 동기 대비 20.9% 하락한 6,617원/kg이었다. 남도종 가격은 6,898원/kg으로 전년 대비 21.5% 하락하였다.

그림 11-8. 깐마늘 품종별·월별 도매가격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주 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

2) 평년 가격은 2018년 6월~2023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기준 평균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1.6. 중국 산지 동향

- KREI 농업관측센터 중국 해외 모니터 조사 결과, 2023년산 중국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감소하여 전년(2022년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2년산 마늘 생산량이 늘어¹⁵⁾ 가격이 하락하였고, 생산비도 상승하면서 2023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생육기 기상악화로 구 비대가 원활치 않아 수확량이 감소하였고, 햇마늘 수확기와 건조 시기에 잦은 비가 내리면서 저품위 마늘 생산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3년산 중국 마늘 산지 가격은 생산량이 감소하여 2022년산과 평년 대비 높게 형성되었다.

15) 2022년산 중국 마늘 생산량 2,139만 톤으로 2021년산 대비 0.8% 증가(FAO, 2023.12.27)

- 재고량이 적고 중국 내수와 수출 수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 증가¹⁶⁾)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저장·출하기 가격도 전년과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산 중국 마늘 재배면적은 2023년산 가격이 높아 마늘 주산지(산동성, 하남성, 강소성 등)를 중심으로 전년(2023년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2. 2024년 상반기 전망

2.2.1. 2023년산 마늘 재고량 추정

- 2023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2022년산) 대비 9.2% 많은 9만 9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 KREI 농업관측센터 표본 저장·가공업체 조사 결과(2023. 12. 20.), 2023년산 난지형 마늘 누적 출고량은 전년(2022년산) 동기 대비 9.4% 많고, 평년보다는 8.1% 적은 4만 3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 2023년산 수확기 가격 하락으로 저장마늘 초기 출고가 원활하지 못했으나, 김장 수요 증가¹⁷⁾와 수입량 감소¹⁸⁾에 따른 국내산 소비 증가¹⁹⁾로 11~12월 출고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감모율을 고려한 2023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2022년산 동기 대비 8.3% 많은 5만 1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16) 중국 신선마늘(HS CODE:07032010) 주요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의 2023년 6~11월 수출량은 2022년 동기 대비 8.4~272.8% 증가함(한국무역협회).

17) 4인 가족 기준, 2023년 김장용 배추 구매 포기 수는 19.9포기로 2022년(21.8포기) 대비 1.9포기 감소하였으나, 마늘 구매 의향량은 2023년산 마늘 가격 하락과 가정 내 소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2023년 소비자 김장 의향 및 주요 채소류 공급 동향 전망」, KREI 농정포커스 제218호, 2023.11.13.).

18) 2023년산(6~12월) 수입량은 중국 마늘 생산량 감소로 산지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전년 대비 59.0% 감소하였으며, 관세가 낮아(27%) 꾸준히 수입되던 냉동마늘도 44.9% 감소하였음.

19) 음식점의 마늘 원산지별 구매 비중을 조사한 결과(KREI 음식점 소비실태 조사, 2023.9.22.~10.21.), 2023년 3분기 통마늘, 깐마늘, 다진마늘 국내산 구매 비중은 전분기 대비 7~12%p 증가함. 특히, 깐마늘과 다진마늘은 전년 동기 대비도 각각 9%p, 11%p 증가함.

- 2023년산 감모율은 수확기 기상 여건 양호로 저장마늘 품위가 좋았던 전년(8.6%)보다 높고 평년(9.3%)과 비슷한 9.2%로 조사되었다.

표 11-29. 2023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 추정(2023년 12월 말 기준)

단위: 톤, %

구 분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23년산		99,127	42,753	51,187
2022년산		90,781	39,070	47,279
평년		99,444	46,509	47,999
증감률	전년	9.2	9.4	8.3
	평년	-0.3	-8.1	6.6

주 1) 재고량(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23년산 9.2%, 2022년산 8.6%, 평년 9.3%)을 적용한 국내산 기준이며, 국내산 정부 비축물량이 포함된 수치

2) 평년 입고량은 2018~2022년산 입고량 추정치(농업관측센터)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기준 평균
자료: 농업관측센터, 2023년 12월 20일 표본 저장·가공업체 조사치

- 2024년 상반기(1~5월) 간마늘 도매가격은 재고량이 많아 2023년(7,819원/kg)과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1월 가격 수준(6,800원 내외)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단경기 저장·가공업체의 출하시기 조절과 출하가 빠른 제주, 전남지역의 2024년산 마늘 작황에 따라 가격 등락폭은 달라질 수 있다.

2.2.2. 2024년산 마늘 재배면적 조사 결과

- KREI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2023. 11. 20.), 2024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2023년산) 대비 2.8% 감소한 2만 3,944ha로 조사되었다.
 - 2023년산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확기(6~8월) 마늘 가격 하락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고 재배가 용이한 작목(양파, 양배추, 콩, 깨 등)²⁰⁾으로 전환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0) 마늘 10a당 노동투입시간(통계청, 2023년 기준)은 112.0시간이며, 양파 87.6시간, 참깨 50.9시간, 콩 17.5시간으로 마늘에 비해 노동투입시간이 적음.

- 품종별로 한지형 마늘은 전년(2023년산) 대비 3.2% 감소하고, 난지형 마늘은 2.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난지형 가운데 대서종은 전년 대비 0.9% 감소, 남도종은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0. 2024년산 마늘 재배면적 추정

단위: ha, %

구 분		한지형	난지형	전체
2024년산		4,434	19,510	23,944
2023년산		4,581	20,048	24,629
평년		4,823	19,760	24,583
증감률	전년	-3.2	-2.7	-2.8
	평년	-8.1	-1.3	-2.6

주 1) 2019~2020년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021~2023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 결과, 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평년은 2019~2023년산 재배면적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2023년 11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전년 대비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도종 마늘 주산지인 전남과 제주지역은 2023년산 마늘 가격이 낮아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등으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늘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지형 마늘 주산지인 경북, 충청지역에서 난지형 대서종 마늘로 품종을 전환한 농가가 많아 대서종 재배면적은 타 품종에 비해 전년 대비 감소폭이 적게 나타났다.

표 11-31. 2024년산 마늘 지역별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전체
-2.6	-0.1	-3.9	-2.2	-7.3	-2.8

자료: 농업관측센터, 2023년 11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12월 말 주산지 모니터 조사 결과, 8월 하순~9월 중순 잦은 강우로 파종이 전년보다 5~10일 지연되었으나, 9월 하순 이후 기상 여건이 좋아 현재 시점까지 마늘 생육 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9월 중순 파종 이후 잦은 비로 인해 습해 영향을 받았던 충청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초기 작황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최근 급격한 기온 변화(11월 중순 저온, 12월 상순 이상 고온 등)와 습한 날씨 영향으로 생리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우려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2.2.3. 2024년산 마늘 생산량 전망

- 최근 수확기 기상변화에 따른 단수 변동성이 커 직전 5개년(2019~2023년산) 평년 단수를 2024년산 마늘 추정 재배면적에 적용하여 생산량을 전망하였다.
- 2024년산 마늘 생산량은 2023년산 대비 2.0%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2.6% 감소한 31만 9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표 11-32. 2024년산 마늘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 톤, %

구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4년산		23,944	1,331	318.6
2023년산		24,629	1,269	312.4
평년		24,583	1,331	327.1
증감률	전년	-2.8	4.9	2.0
	평년	-2.6	0.0	-2.6

주 1) 2019~2020년산은 통계청 조사 결과, 2021~2023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조사 결과, 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평년은 2019~2023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2.3. 중장기 전망

- 마늘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²¹⁾에 따른 재배 감소와 생산비 상승²²⁾ 등으로 2024~2033년 기간 동안 연평균 1.3% 감소하며, 2028년 22,212ha, 2033년 21,243ha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10년간(2024~2033년산) 마늘 생산량은 단수 증가폭보다 재배면적 감소폭이 커, 2024년 32만 톤에서 2033년 29만 톤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생산비·노동력 절감을 위한 재배기술 발달(발작물 기계 개발 및 보급²³⁾ 등)과 난지형 대서종 마늘 생산 비중 확대로 2024년 이후 연평균 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33. 마늘 중장기 수급 전망(연산기준: 6월~익년 5월)

구 분	단위	2023	전망		
			2024	2028	2033
재배면적	ha	24,629	23,944	22,212	21,243
총 공급량(A=B+C)	천 톤	363	374	355	349
국내 생산량(B)	천 톤	312	319	300	292
순수입량(C=D-E)	천 톤	48	53	55	56
수입량(D)	천 톤	49	53	56	57
수출량(E)	천 톤	0.5	0.4	0.4	0.4
자급률(B/A)	%	86.6	85.6	84.5	83.8

주 1) 2023년산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2024년산 재배면적은 농업관측센터 조사치

2) 2023년산 수출입량, 2024년 이후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

3) 총 공급량에는 이월재고량 미포함

4) 순수입량은 수입량과 수출량의 차이를 의미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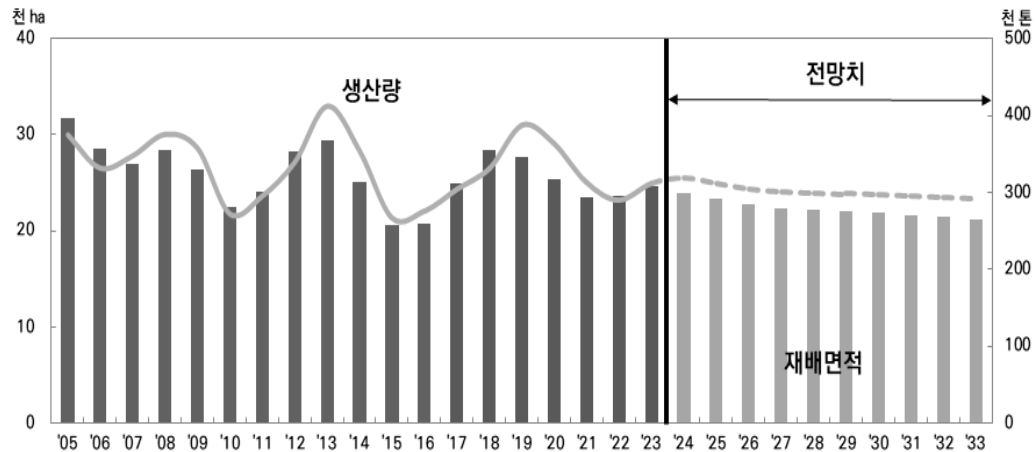
21)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4년 19.2%에서 2033년 27.9%로 상승 전망(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년 기준)」)

22) 생산비(통계청, 「농축산물생산비조사」)는 2000~2023년 기간 동안 연평균 5.5%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 순 수익(총수입-생산비)은 연평균 2.1% 증가에 불과함.

23) 마늘 평균 기계화율(농촌진흥청, 「발작물 기계화율(2021년 기준)」)은 61.8%로 2015년(57.1%)에 비해 4.7%p 증가하였으며, 비닐·피복, 수확단계 기계화율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냉동마늘 수요가 유지되면서 마늘 수입량은 향후 10년간(2024~2033년산) 연평균 0.7% 증가하여 2033년 5만 7천 톤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2033년간 마늘 총 공급량은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국내산 마늘 생산기반 축소로 인해 2024년 37만 톤에서 2033년 35만 톤 내외까지 감소가 전망된다. 자급률은 2024년 86%에서 2033년 8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1-9. 마늘 생산 동향 및 중장기 전망(연산기준: 6월~익년 5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통계청

03 건고추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3.1. 최근 수급 동향

3.1.1. 생산 동향

- 2023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2022년산 및 평년 대비 각각 4.6%, 15.4% 적은 6만 18톤이었다.
- 2023년산 재배면적은 2022년산 및 평년 대비 각각 8.9%, 12.1% 감소한 27,132ha였다.
 - 2022년산 도매가격이 전·평년 대비 높았지만, 단위면적당 노동 투입 시간²⁴⁾이 많은 건고추 작목 특성상 생산비 증가폭이 커 농가가 재배를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 2016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던 고추 재배면적은 2017~2021년 5년간 도매가격에 따라 3만 ha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였다. 농가 고령화가 심화되어 노동 투입 시간이 적은 참깨, 콩 등으로 작목이 전환되어 고추 재배면적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 2023년산 단수는 2023년 여름철(7월) 강우로 평년 대비 3.8% 감소한 221kg/10a이었다. 9~10월 후기 수확량이 증가하여 가뭄이 심했던 2022년산보다는 4.8% 많았다.
 - 호남과 충남지역 작황은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가 커 부진하였으나, 최대 주산지인 경북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 2011~2021년산 10a당 수확량은 232kg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기상 변동성이 심해져 2022~2023년산 단수는 평균보다 감소하였다.

24) 주요 작목 10a당 노동력 투입 시간(통계청, 2022년 기준) : 고추(141.5시간), 마늘(111.8), 양파(90.3), 참깨(79.1), 가을감자(45.0), 콩(17.5)

표 11-34. 2023년산 건고추 생산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ha, kg/10a, 톤, %

구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3년산		27,132	221	60,018
2022년산		29,770	211	62,916
평년		30,853	230	70,954
증감률	전년	-8.9	4.8	-4.6
	평년	-12.1	-3.8	-15.4

주 1) 2022~2023년산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조사치

2) 평년은 2018~2022년산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3.1.2. 수출입 동향

- 2023년산(8~12월) 건고추 수출량은 2022년(20,672톤) 및 평년(19,418톤) 동기 대비 각각 8.2%, 15.2% 많은 2만 2,362톤이었다. 2022년 동기 대비 고추장류 수출이 14.1% 늘었고, 기타소스(8.9%), 김치(11.4%) 등도 크게 증가하였다.
- 수출량 중 고추장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5.9% 수준이지만 수출량 증가세는 가파르다.
 - 국내 식품 대기업을 중심으로 짬뽕은 줄이고, 매운맛은 조절하는 형태로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 미국, 중국 등에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떡볶이·불닭소스 등 기타소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69.0%)보다도 높은 71.2%였다.
 - 2023년 미슐랭 가이드²⁵⁾에 선정된 뉴욕시 식당 71개 중 11개가 한식당이었는데, 한식 인지도가 높아져 관련 제품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주요 수출국은 중국(26.1%), 미국(13.0%), 일본(9.0%), 러시아(6.8%) 등이었다.

25) 프랑스 타이어 회사인 미슐랭(미쉐린)사에서 발간하는 레스토랑 안내서(「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1년 한식당 최초 선정 이후 증가 추세

표 11-35. 2023년산 건고추 수출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톤, %

구 분	2023년산	2022년산	평년
총 수출량	22,362 (100.0)	49,648 (100.0)	47,587 (100.0)
건고추류	2,232 (10.0)	5,325 (10.7)	5,289 (11.1)
냉동고추	0 (0.0)	0 (0.0)	1 (0.0)
혼합조미료	2,072 (9.3)	5,124 (10.3)	4,719 (9.9)
기타 소스	15,929 (71.2)	34,237 (69.0)	32,950 (69.2)
고추장	1,308 (5.9)	2,976 (6.0)	2,749 (5.8)
김치	820 (3.7)	1,985 (4.0)	1,880 (4.0)

주 1) ()는 건고추 형태별 수출량 비중

2) 수출량은 기타소스, 혼합조미료, 냉동고추, 고추장, 김치에 포함되어있는 고춧가루에 수출 적용을 통해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과 건고추류 수출량을 합한 수치이며, 휴대용 반출량은 미포함

3) 고춧가루는 수출(63.8%)을 적용한 후, 건고추로 환산하여 건고추류 수출량에 포함

4) 2023년산 수출량은 2023년 8~12월 누적 수출량이며, 평년은 2018년 8월~2023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기준 평균

자료: 관세청

- 2023년산(8~12월) 건고추 수입량은 국내산 도매가격이 높아 2022년(56,862톤) 및 평년(53,702톤) 동기 대비 각각 5.9%, 12.2% 증가한 6만 242톤이었다.
 - 2022년 동기 대비 건고추(고춧가루 포함) 수입이 85.7% 증가하였고, 기타소스와 김치는 각각 5.2%, 1.1% 증가하였다.
 - 2023년에는 건고추 생산량 감소로 2015년 이후 8년 만에 TRQ 약 3천 톤이 도입(8월 1,940톤, 12월 980톤)되어 건고추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 2023년산 수입 형태별 비중은 기타소스(49.7%)가 가장 많았고, 냉동고추(29.1%), 김치(9.6%), 건고추류(9.3%) 순이었다.
-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타 소스(떡볶이·김치 소스 등)는 원료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소스류 원료의 국산 사용 비중은 전체의 19.6% 내외였다.²⁶⁾ 고춧가루도 국내산 사용 비중은 9.2%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2019년 대비 1.9%p 감소한 수치이다.

26) 「2022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냉동고추 수입량은 감소 추세이다. 건조·분쇄 등 가공 단계를 거치는 냉동고추와 달리 사용이 편리한 중국산 고추다대기 수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 국내 대다수 업체가 중국산 고추다대기와 혼합양념 분말로 고추장을 생산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추다대기를 건조해 유사 고춧가루(향신료 조제품)로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²⁷⁾.
- 2023년 냉동고추 수입단가는 톤당 763달러로 2022년산 중국 건고추 재고량이 적어 2022년(736달러) 대비 3.7% 상승하였다. 수입단가는 상승하였지만, 환율이 하락하여 가공 후 고춧가루로 납품될 때 국내 시장 출하가능가격은 2022년산 대비 2.3% 낮은 600g당 5,440원(9,060원/kg)으로 추정된다.

표 11-36. 2023년산 건고추 수입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톤, %

구 분	2023년산	2022년산	평년
총 수입량	60,242 (100.0)	135,259 (100.0)	129,624 (100.0)
건고추류	5,624 (9.3)	7,468 (5.5)	6,774 (5.2)
냉동고추	17,539 (29.1)	42,802 (31.6)	46,885 (36.2)
혼합조미료	1,358 (2.3)	3,001 (2.2)	2,537 (2.0)
기타 소스	29,932 (49.7)	68,566 (50.7)	60,239 (46.5)
고추장	5 (0.0)	14 (0.0)	18 (0.0)
김치	5,784 (9.6)	13,407 (9.9)	13,171 (10.2)

주 1) ()는 건고추 형태별 수입량 비중

2) 수입량은 기타소스, 혼합조미료, 냉동고추, 고추장, 김치에 포함되어있는 고춧가루에 수출 적용을 통해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과 건고추류 수입량을 합한 수치이며, 휴대용 반출량은 미포함

3) 고춧가루는 수출(63.8%)을 적용한 후, 건고추로 환산하여 건고추류 수입량에 포함

4) 2023년산 수입량은 2023년 8~12월 누적 수입량이며, 평년은 2018년 8월~2023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기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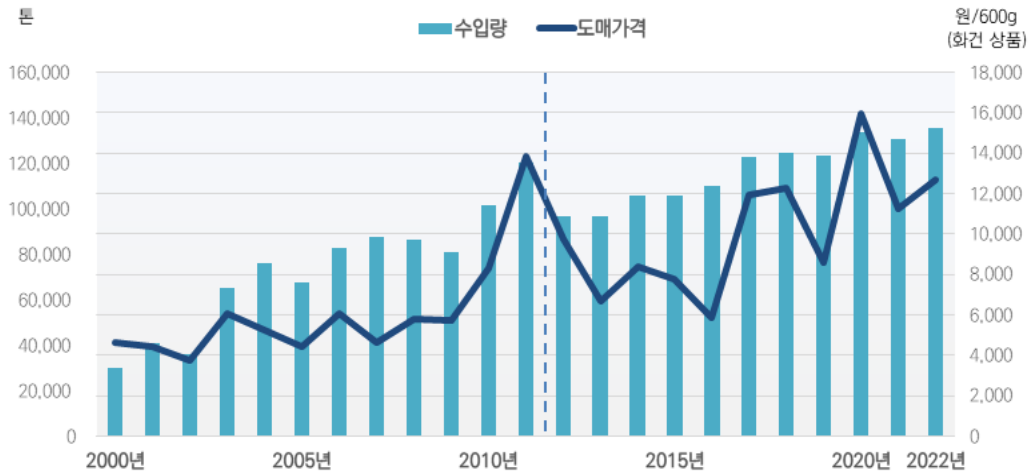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 2011년 이전에는 대체로 건고추 도매가격이 상승하면 수입량이 증가하고, 도매가격이 하락하면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는 도매가격이 상승할 때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해도 수입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계단 형태의 증가 추세를 보인다.

27) “중국산 고추다대기 ‘공습’…지난해 수입 역대 최대”, 농민신문(2023. 8. 31.)

- 대량수요처에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을 사용한 뒤 국산으로 다시 바꾸지 않아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림 11-10. 연도별 건고추 수입량 및 도매가격 추이



주 1) 수입량은 기타소스, 혼합조미료, 냉동고추, 고추장, 김치에 포함되어있는 고춧가루에 수출 적용을 통해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과 건고추류 수입량을 합한 수치이며, 휴대용 반출량은 미포함

2) 고춧가루는 수출(63.8%)을 적용한 후, 건고추로 환산하여 건고추류 수입량에 포함

자료: 관세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1.3. 공급 동향

- 2023년산 건고추 공급량은 생산량이 적어 2022년산 및 평년 대비 각각 0.5%, 1.8% 감소한 15만 톤 내외로 전망된다. 수입이 증가하여 공급량 감소는 생산량 감소 폭만큼 크지 않다. 2023년산 수입 및 수출, 기말재고 등에 따라 추후 공급량은 달라질 수 있다.
- 2023년산 건고추 자급률은 40.1%로 2022년산 및 평년 대비 각각 1.7%p, 4.8%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2년간(2022~2023년산) 생산량이 적어 평년(45%)보다 자급률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표 11-37. 2023년산 건고추 공급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천 톤, %, %p

구 분	2023년산(p)	2022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공급량 (f=a+b+c-d-e)	150	151	152	-0.5	-1.8
이월재고량(a)	7	9	6	-24.8	24.4
생산량(b)	60	63	71	-4.6	-15.4
수입량(c)	142	135	130	5.0	9.5
수출량(d)	53	50	48	7.0	11.4
기말재고량(e)	6	7	6	-15.5	0.0
자급률(b/f)	40.1	41.8	44.9	-1.7	-4.8

- 주 1) 공급량은 이월재고·생산·수입량 합에 수출·기말재고량을 제외한 수치
 2)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추정
 3) 2023년산 수출량과 수입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
 4) 평년 공급량은 2018년 8월~2023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기준 평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3.1.4. 소비 동향

- 2023년산 건고추 1인당 소비량은 2022년산과 비슷하고, 평년보다는 1.9% 적은 2.9kg 내외로 추정된다.

표 11-38. 2023년산 건고추 1인당 소비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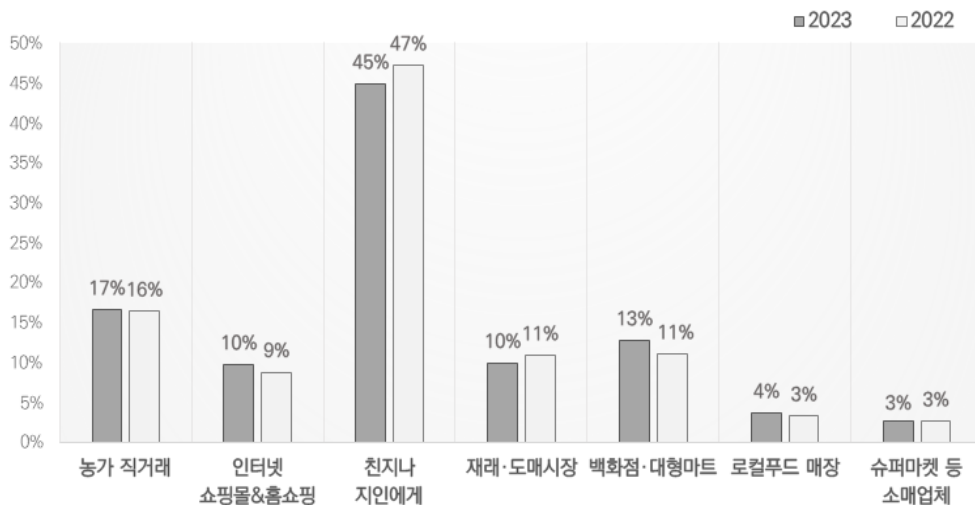
단위: kg, %

2023년산(p)	2022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2.9	2.9	3.0	0.0	-1.9

- 주 1) 1인당 소비량은 순 공급량에서 추계인구를 나누어서 산출
 2) 2023년산 소비량에서 수출량, 수입량은 추정치
 3) 평년 소비량은 2018~2022년산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 소비자 조사 결과(KREI 농업관측센터, 2023.12.), 건고추(고춧가루) 구입 방식은 ‘친지나 지인을 통해’가 44.7%로 가장 많았으며, ‘농가 직거래’ 16.5%,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 12.7%, ‘인터넷 및 홈쇼핑’ 9.7% 순이었다.
 - ‘친지나 지인을 통해’와 ‘농가 직거래’ 비중의 합이 61.2%로 다른 양념 채소류 대비 도·소매 단계를 거치지 않고 구매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3년에는 2022년보다 친지나 지인을 통한 구매 비중이 소폭 감소하고, 인터넷 쇼핑물과 홈쇼핑,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림 11-11. 건고추(고춧가루) 구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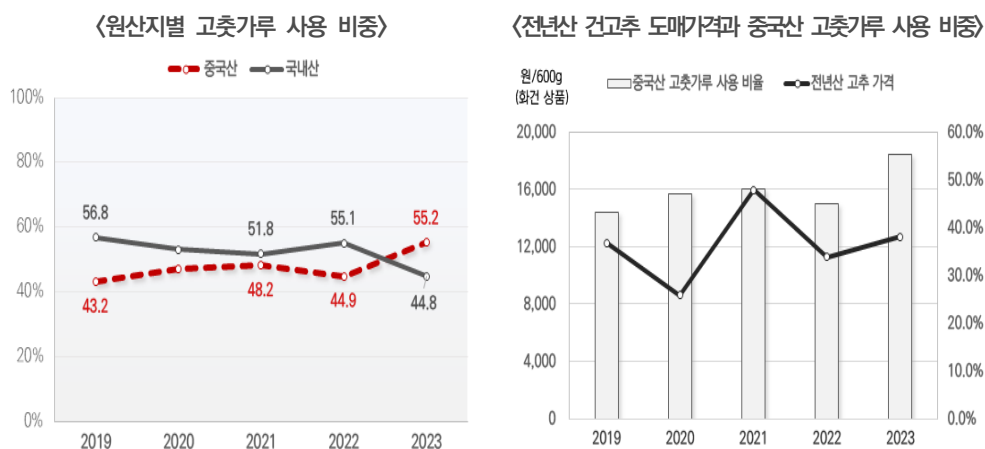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가구 소비자 패널 조사치

- 외식 시 소비자의 81.3%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건고추(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중 5.4%의 소비자만 수입산과 국내산의 품질과 안전성에 큰 차이를 느끼지 않아 원산지에 상관없이 소비하였다. ‘중국산 고춧가루 섭취가 신경이 쓰이나 어쩔 수 없이 먹는’ 소비자 비중이 53.3%로 절반을 넘었으며, ‘덜 먹거나(30.2%)’, ‘먹지 않는(11.2%)’ 소비자도 있었다.
- KREI 농업관측센터 음식점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 2023년 월평균 고춧가루 구매량은 2022년 대비 1~5% 증가한 12.4~15.4kg이었다.

- 2023년 1분기 구매량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3.1kg이었다. 이는 2022년 1분기 구매량이 감소(사회적 거리두기)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2~3분기 구매량은 전년 대비 1% 내외 증가하였다.
- 2023년 3분기 기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업체 비중은 2022년(44.9%) 대비 10.3%p 증가한 55.2%였다. 국내산 건고추 생산량이 적어 고춧가루 가격이 상승하자 중국산 고춧가루로 전환한 업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 2019년까지만 해도 국내산 고춧가루 사용 비중은 중국산 대비 약 14%p 높은 56.8%이었지만 이후 격차가 점점 좁혀지더니 2023년에는 중국산 비중이 55.2%로 역전되었다.
- 국내산 가격이 하락하면 일시적으로 중국산 고춧가루 사용 비중이 소폭 감소하기도 하나,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11-12. 음식점 고춧가루 사용 실태



주: 음식점 고춧가루 사용 비중은 3분기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관측센터, 음식점 소비실태 조사 결과

3.1.5. 가격 동향

- 2023년산(8~12월) 건고추 화건 상품 가격은 2023년산 생산량이 감소하여 2022년 및 평년 동기 대비 각각 6.9%, 9.4% 높은 13,840원/600g이었다.
 - 2023년 8월 가격은 여름철 잦은 비로 생육이 늦어 수확이 지연되었고, 무름병 등 병해도 증가하여 2022년 8월 및 평년 대비 크게 높았다.
 - 9~10월 후기 작황이 회복되었고, 최대 주산지인 경북지역 출하를 시작으로 출하량이 증가하여 9월 가격은 8월보다 하락하였다.
 - 10월 이후 가격이 하락하였던 2022년산·평년과 달리 2023년산 가격은 9~12월 보험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11-39. 2023년산 건고추 화건 월별 도매가격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원/600g(상품), %

구 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2023년산	15,364	13,287	13,499	13,533	13,524							
2022년산	12,745	13,201	13,346	12,925	12,552	12,528	12,528	12,500	12,458	12,480	12,562	12,724
평년	13,977	13,023	12,327	11,973	11,964	11,831	11,757	11,704	11,616	11,602	11,589	11,663
비율	전년	20.5	0.7	1.1	4.7	7.7						
	평년	9.9	2.0	9.5	13.0	13.0						

주 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

2) 평년 가격은 2018년 8월~2023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기준 평균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1.6. 중국 동향

- KREI 농업관측센터 중국 해외 모니터 조사 결과, 2023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확대로 2022년산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 2023년산 재배면적은 2022년산 건고추 가격이 높아 신규 재배지역이 증가하는 등 2022년산 대비 확대되었다.
 - 2023년산 작황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강지역은 5월 폭설, 내몽고와 길림지역은 장마철 침수 피해가 일부 있으나, 작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산 중국 건고추 산지 가격은 햇건고추가 출하되면서 공급량이 증가하여 2022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2024년 상반기 전망

3.2.1. 2023년산 건고추 재고량 추정

- 2023년 12월 말 기준, 건고추 재고량은 2022~2023년산 생산량이 적어 2022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0.1%, 7.9% 감소한 1만 2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수입량이 증가하였지만, 수출량도 2022년 대비 크게 늘었고(2천여 톤), 생산량 감소 영향이 커 전체 공급량이 감소하였다.
- 2024년 상반기 건고추 도매가격은 재고량이 적어 2023년 및 평년 대비 높으며, 1월 (13,500원/600g)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단경기 재고 출하, 가공업체 수요 등에 따라 가격 등락폭은 달라질 수 있다.
- 농가가 보유한 2023년산 재고 비중은 2022년(1.7%) 대비 많은 2.1% 내외이다.
 - 2022년산은 생육기 가뭄·고온 때문에 열과, 곡과 등 저품질 물량이 많아 조기에 출하를 종료한 농가가 많았다. 2023년산 재고는 2024년산 수확기 전까지 소량씩 출하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40. 2023년산 건고추 재고량 추정(2023년 12월 말 기준)

단위: 천 톤, %

구 분		생산량 (A)	이월·수입량 (B)	8~12월 공급량 (C=A+B)	8~12월 소비량 (D)	12월 말 재고량 (E=C-D)
2023년산		60.0	70.1	130.1	118.4	11.7
2022년산		62.9	68.6	131.5	116.9	14.6
평년		71.0	63.2	134.2	121.5	12.7
증감률	전년	-4.6	2.2	-1.1	1.3	-20.1
	평년	-15.4	10.8	-3.1	-2.6	-7.9

주: 평년은 2018~2022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3.2.2. 2024년산 건고추 재배의향면적 전망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2023. 12. 20.), 2024년산 건고추 재배의향면적은 2023년산 및 평년 대비 각각 2.0%, 13.8% 감소한 26,598ha로 전망된다.
 - 2023년산 작황이 양호했던 영남지역은 면적 감소 폭이 1% 내외로 작았지만, 그 외 지역은 일손 부족, 2023년산 작황 부진 등을 이유로 재배 의향이 감소하였다.
 - 품종은 2023년과 마찬가지로 복합내병계와 탄저내병계 등을 선호하였다.
- 2023년 12월 말 기준, 2023년산 재고량이 적기 때문에 정식기 이전 산지·도매가격이 상승하면 실제 재배면적은 변동될 수 있다.

표 11-41. 2024년산 건고추 재배의향면적

단위: ha, %

2024년산	2023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26,598	27,132	30,853	-2.0	-13.8

주: 평년은 2019~2023년산의 최소, 최대를 제외한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2023년 12월 20일 표본농가 조사 결과

3.3. 종장기 전망

- 2024~2033년 건고추 재배면적은 장기적으로 연평균 0.1% 감소하여 2033년 2만 6천 ha 내외로 전망된다.
 - 2021년 3만 3천 ha에서 2024년 2만 7천 ha까지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2025~2026년에는 일시적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고추 재배를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재배면적은 장기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내병성이 높은 복합내병계 품종 보급이 확대되는 등 단수 증가 영향으로 2024~2033년 건고추 생산량은 연평균 0.3% 증가하여 2033년 5만 9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2024년산 재배의향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2024년 수입량은 14만 3천 톤 내외로 2023년 보다 1.1% 증가하며, 장기적으로 2033년 14만 4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고추장류, 기타소스, 김치 등 수출이 확대되고 있어 2024~2033년 수출량은 5만 4천 톤에서 5만 9천 톤으로 연평균 0.9% 증가하겠다.
-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은 증가하여 건고추 총 공급량은 2024년산 14만 7천 톤에서 2033년산 14만 4천 톤으로 소폭 감소하겠다. 자급률은 40.8% 내외에서 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42. 건고추 중장기 수급 전망(연산기준: 8월~익년 7월)

구 분	단위	2023	전망		
			2024	2028	2033
재배면적	ha	27,132	26,598	27,444	26,262
총 공급량(A=B+C)	천 톤	149	147	146	144
국내 생산량(B)	천 톤	60	57	60	59
순수입량(C=D-E)	천 톤	89	89	86	85
수입량(D)	천 톤	142	143	143	144
수출량(E)	천 톤	53	54	57	59
자급률	%	40.1	39.0	41.1	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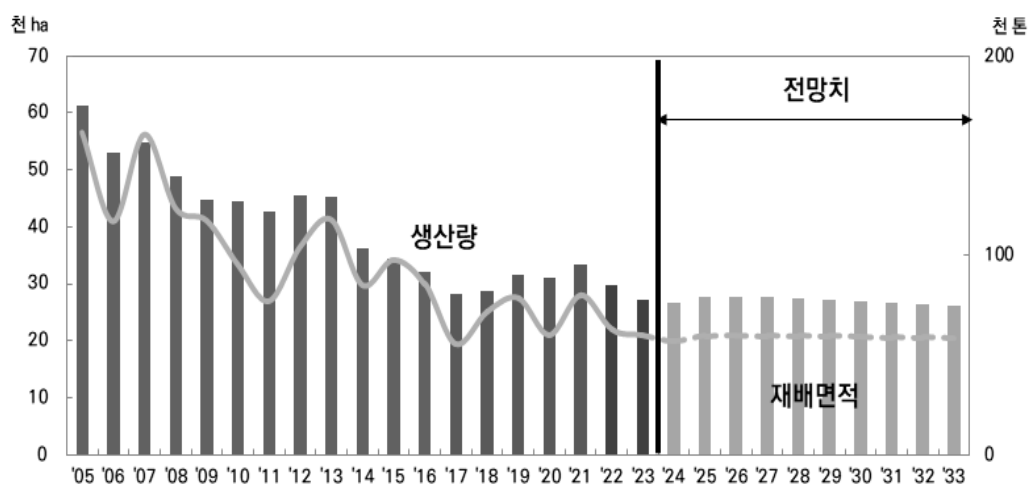
주 1) 2023년 생산량은 KREI 전망치이며, 공급량에는 이월재고량 미포함

2) 2023년산 수출입량, 2024년 이후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

3) 2024년산 재배면적은 농업관측센터 조사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통계청

그림 11-13. 건고추 생산 동향 및 중장기 전망(연산기준: 8월~익년 7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통계청



04

대파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4.1. 최근 수급 동향

4.1.1. 생산 동향

- 2023년 대파 재배면적은 2023년 정식기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2022년) 대비 5.4% 증가하나, 평년 대비 7.2% 감소한 11,116ha이었다.
 - 봄 대파 재배면적은 2022년 정식기(10~12월) 가격이 높아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다.
 - 고랭지대파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하였으며, 가을과 겨울대파는 전년 대비 각각 15.5%, 3.6% 증가하였다.
 - 최근 10년간 재배면적은 정식기와 출하기 가격 변동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면서 연평균(2014~2023년) 0.2%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11-43. 2023년 대파 작형별 재배면적

단위: ha, %

구 분	2023년	2022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체	11,116	10,550	11,980	5.4	-7.2
봄대파	2,527	2,373	2,906	6.5	-13.1
고랭지대파	2,515	2,511	2,802	0.1	-10.3
가을대파	1,978	1,713	2,216	15.5	-10.7
겨울대파	4,096	3,953	4,056	3.6	1.0

주: 평년 재배면적은 2018년 1월~2022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023년 대파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나, 단수가 감소하여 전년(2022년) 대비 15.9% 감소, 평년보다 20.2% 감소한 27만 2천 톤 내외로 예상된다.
- 5~6월 주 출하되었던 봄대파는 주산지(경기·전북지역 등)의 강풍과 집중호우 영향으로 단수가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 고랭지 및 가을대파는 6~7월 장마철 집중호우 이후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은 고온이 지속되면서 단수가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 12월부터 익년(2024년) 5월까지 출하되는 2023년산 겨울대파 단수는 생육기 여름철 기상악화 및 12월 주산지 강풍과 폭설로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44. 2023년 대파 생산 동향

단위: ha, kg/10a, 톤, %

구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3년		11,116	2,451	272,453
2022년		10,550	3,072	324,096
평년		11,953	2,897	341,299
증감률	전년	5.4	-20.2	-15.9
	평년	-7.0	-15.4	-20.2

주 1) 2023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 단수(5월~익년 4월까지)를 적용

2) 평년 생산량은 2018년 1월~2022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4.1.2. 수출입 동향

- 2023년 대파 수출량은 전년(2022년) 대비 15.2% 증가한 29톤이었다. 국내산 대파는 주로 신선 및 건조대파로 수출되고 있으나,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미만이다.

표 11-45. 2023년 대파 수출 동향

단위: 톤, %

구 분	2023년	2022년	평년
총수출량	29 (100.0)	25 (100.0)	36 (100.0)
신선대파	18 (62.1)	18 (72.0)	8 (22.2)
건조대파	5 (17.2)	6 (24.0)	28 (77.8)
냉동대파	6 (20.7)	1 (4.0)	0 (0.0)

주 1) 신선대파는 HS코드 0703-90-9000(양파·쪽파·마늘·리크 외 기타 파속의 신선 또는 냉장채소), 0703-90-2000(신선대파·쪽파), 건조대파는 HS코드 0712-90-2030(파), 냉동대파는 2022년 신설된 HS코드 0710-80-9010(냉동채소기타)와 평년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통계(0710-80-9000, 냉동채소기타)를 사용하였으며, 총수출량은 건조대파에 수출을 적용하여 신선대파로 환산한 물량

2) 평년 수출량은 2018년 1월~2022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3년 대파 수입량은 전년(2022년)과 평년 동기 대비 각각 10.8%, 4.1% 증가한 4만 4천 톤 내외였다.
 - 신선대파 수입량은 전년(2022년)과 평년 대비 각각 227.5%, 36.8% 증가한 8,500톤 내외였다. 특히 2023년 5~6월 5,000톤(신선, 건조, 냉동대파), 11~12월 신선대파 2,000톤 할당관세 물량 도입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 2023년 중국산 대파는 생산량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여 신선대파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건조대파 수입량은 감소하였다.

표 11-46. 2023년 대파 수입 동향

단위: 톤, %

구 분	2023년	2022년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총수입량	43,671 (100.0)	39,404 (100.0)	41,949 (100.0)	10.8	4.1
신선대파	8,469 (19.4)	2,586 (6.6)	6,189 (14.6)	227.5	36.8
건조대파	19,000 (43.5)	20,782 (52.7)	21,076 (49.7)	-8.6	-9.9
냉동대파	16,202 (37.1)	16,036 (40.7)	15,171 (35.7)	1.0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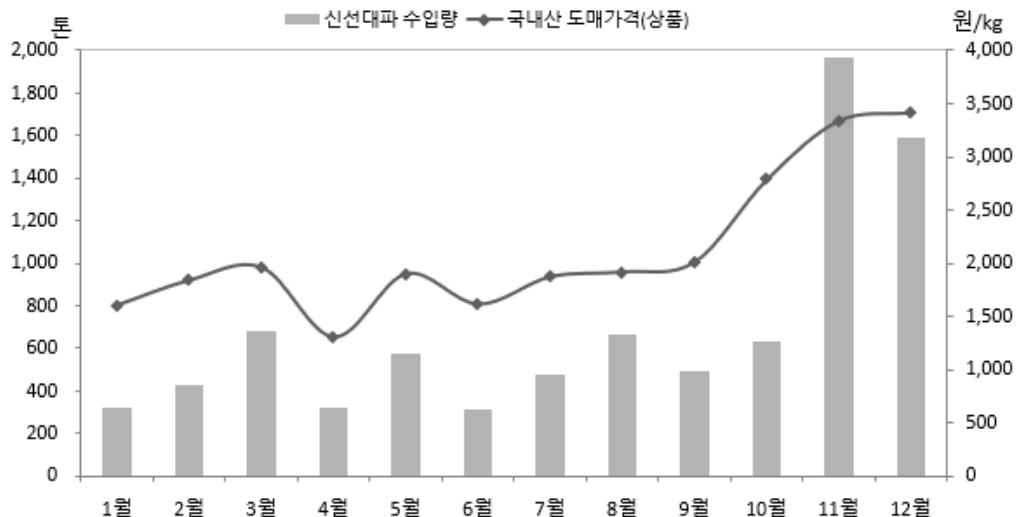
주 1) 신선대파는 HS코드 0703-90-9000(양파·쪽파·마늘·리크 외 기타 파속의 신선 또는 냉장채소), 0703-90-2000(신선대파·쪽파), 건조대파는 HS코드 0712-90-2030(파), 냉동대파는 2022년 신설된 HS코드 0710-80-9010(냉동채소기타)와 평년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통계(0710-80-9000, 냉동채소기타)를 사용하였으며, 총수입량은 건조대파에 수출을 적용하여 신선대파로 환산한 물량

2) 평년 수입량은 2018년 1월~2022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내산 도매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중국 신선대파 수입량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림 11-14. 2023년 신선대파 월별 수입 동향



자료: 관세청,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3년 중국산 신선대파의 국내 판매가격은 1,357원/kg으로 전년(2022년)과 평년 대비 각각 26.3% 6.3% 하락하였다.
 - 2023년 중국 대파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여름철 기상악화로 부진하였던 작황이 회복되면서 9월 이후 출하량이 증가하였다.

표 11-47. 중국산 신선대파 국내 판매가격 추정

단위: 원/kg, %, %p

구 분	2023년	2022년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중국산 국내판매가격(A)	1,357	1,842	1,447	-26.3	-6.3
CIF가격	850	1,185	915	-28.3	-7.1
통관 제비용 ¹⁾	506	657	533	-22.9	-4.9
국내산 도매가격(B) ²⁾	2,132	1,603	1,670	33.0	27.7
A/B	63.6	114.9	86.7	-51.3	-23.1

주 1) 통관 제비용은 관세(27%), 수입 제비용, 수입업체 이윤,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등이 포함

주 2) 국내산 도매가격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대파 상품 연평균 가격

자료: 관세청,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한국은행, 농업관측센터

4.1.3. 공급 동향

- 2023년 국내 대파 공급량은 생산량이 줄어 전년(2022년)과 평년 대비 각각 13.0%, 17.5% 감소한 31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 2023년 대파 자급률은 생산량 감소 및 수입량 증가로 전년(2022년)과 평년 대비 낮은 86.2%로 추정된다.
 - 2023년 수입량은 정부 할당관세물량(7,000톤)이 도입되었으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11-48. 2023년 대파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 %p

구 분	2023년	2022년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공급량(e=a+d)	316	363	383	-13.0	-17.5
국내 생산량(a)	272	324	341	-15.9	-20.1
순수입량(d=b-c)	44	39	42	10.8	4.0
수입량(b)	44	39	42	10.8	4.1
수출량(c)	0	0	0	15.2	-18.1
자급률(a/e)	86.2	89.2	89.1	-3.0	-2.9

주 1) 2023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수출입 물량 중 건조대파는 신선대파로 환산(수율 0.07% 적용)한 수치

3)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준 값

4) 평년 공급량은 2018년 1월~2022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관측센터

4.1.4. 소비 동향

- 2023년 1인당 대파 소비량은 전년(2022년)과 평년 대비 각각 14.1%, 17.8% 감소한 6.1kg으로 추정된다.
 - 국내 1인당 대파 소비량은 최근 10년간(2014~2023년) 연평균 1.1%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1-49. 2023년 대파 1인당 소비 동향

단위: kg, %

2023년(p)	2022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6.1	7.0	7.4	-14.1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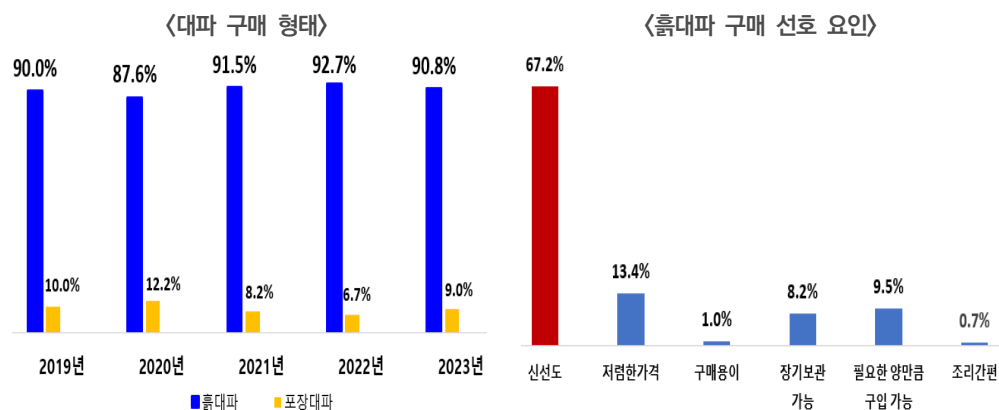
주 1) 대파 1인당 소비량은 대파 순 공급량에서 추계인구로 나누어서 산출

2) 평년 소비량은 2018년 1월~2022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 소비자 조사 결과(KREI 농업관측센터, 2023. 12.), 소비자의 대파 구입 선호 형태는 흙 대파 비중이 90% 내외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포장대파(세척 후 절단)는 10% 내외로 조사되었다.
 - 흙대파를 선호하는 이유는 ‘더 신선한 것 같아서(67.2%)’가 가장 많았고, ‘가격이 저렴해서(13.4%)’, ‘필요한 양만큼 구입이 가능해서(9.5%)’, ‘장기 보관이 가능해서(8.2%)’, ‘구매가 용이해서(1.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15. 2023년 흙대파 구매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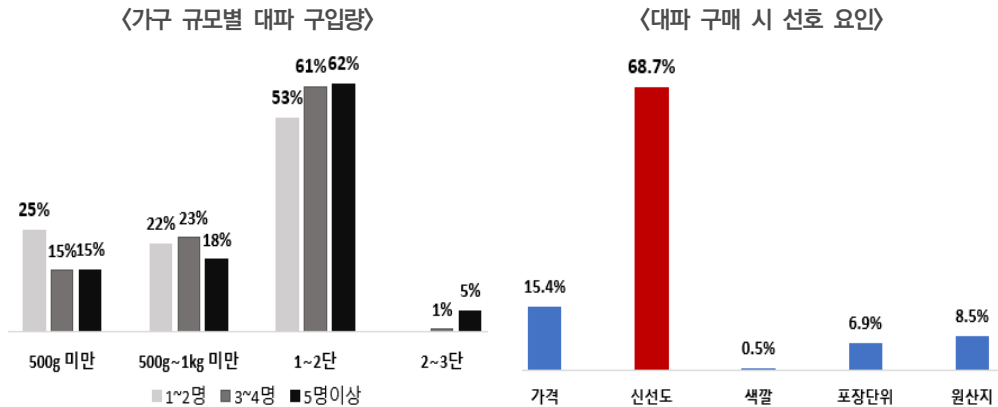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가구 소비자 패널 조사치

- 소비자의 가구 규모별 대파 구입량 선호는 1~2명 가구, 3~4명 가구, 5명 이상 가구 모두 필요할 때만 1~2단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2명 가구에서는 500g 미만으로 구매하는 비중이 25.0%로 조사되어 향후 1인 가구 및 소가족을 대상으로 한 소량 형태의 상품 판매의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파 구매 시 선호하는 요인

은 ‘신선도(68.7%)’가 가장 많았고, ‘가격(15.4%)’, ‘원산지(8.5%)’, ‘포장단위(6.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16. 2023년 가구 규모별 대파 구매 실태



자료: 농업관측센터, 가구 소비자 패널 조사치(2023. 12.)

- KREI 농업관측센터 음식점 패널 33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 구입 형태별 원산지 비중은 국내산 구매 비중이 99.3%로 수입산(0.7%) 보다 많았고, 구매 형태도 흙대파(98.4%)가 깎대파(1.6%)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소비자 조사에서 흙대파 구입 비중이 높은 결과와 동일하다.

4.1.5. 가격 동향

- 겨울대파가 주 출하되는 2023년 1~5월 가격은 2022년산 겨울대파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생육기 기상악화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2022년과 평년 대비 각각 28.5%, 33.3%로 높게 형성되었다.
- 봄대파가 출하되는 5~6월에 정식기(2022년 10~12월) 이후 2023년 1월 한파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2022년과 평년 대비 각각 15.4%, 11.3% 높은 가격이 유지되었다.
- 노지 및 고랭지대파(7~9월)가 출하되는 경기·강원지역은 6~7월 집중호우 영향이 크지 않아 출하가 원활히 진행되면서 2022년과 가격이 비슷하였다.

- 10~12월 가을·겨울대파 도매가격은 여름철 기상악화에 이어 높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출하량이 크게 감소하여 2022년과 평년보다 높은 2,000~3,000원/kg(상품) 수준이 유지되었다.

표 11-50. 2023년 대파 월별 도매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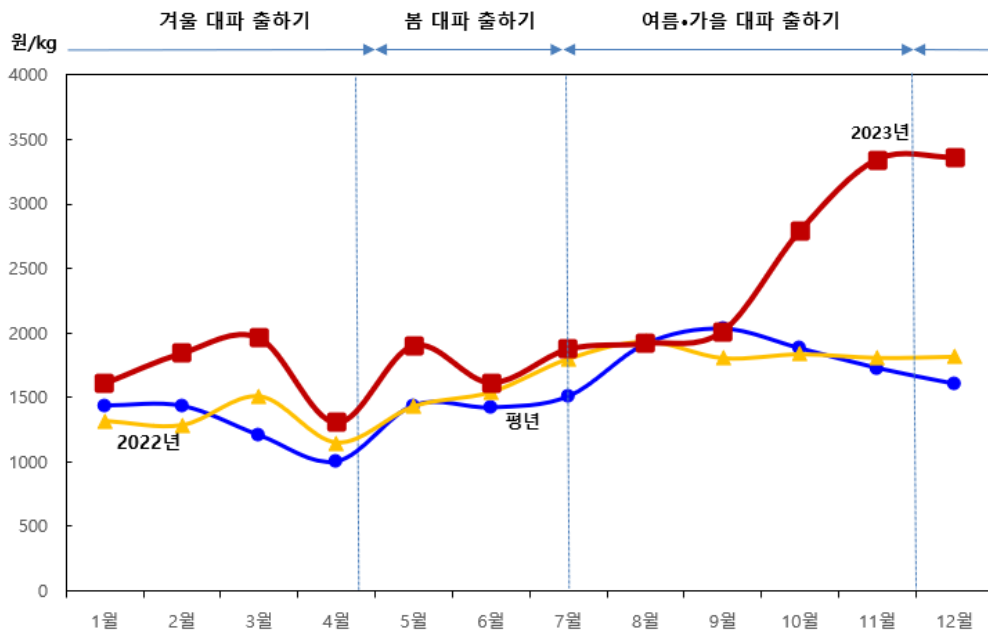
단위: 원/kg(상품),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년	1,607	1,842	1,960	1,304	1,902	1,614	1,873	1,918	2,011	2,788	3,343	3,421
2022년	1,316	1,284	1,508	1,147	1,431	1,542	1,802	1,935	1,807	1,837	1,809	1,818
평년	1,670	1,732	1,572	1,163	1,433	1,282	1,399	1,950	2,018	1,750	1,617	1,520
동락률	전년	22.2	43.5	30.0	13.8	32.9	4.7	3.9	-0.9	11.3	51.7	84.8
	평년	12.1	28.8	63.2	30.4	32.3	13.8	24.4	0.2	-1.0	48.4	93.9

주: 평년 가격은 2018년 1월~2022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그림 11-17. 2023년 대파 작형별 월별 도매가격(상품)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8년 1월~2022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4.1.6. 중국 동향

- KREI 농업관측센터 중국 해외 모니터 조사 결과, 2023년 중국 대파 재배면적은 2022년 한파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2022년(3만 3천 ha) 대비 2.7% 증가한 3만 4천 ha이었다.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늘어 2022년 대비 5.0% 증가한 117만 톤으로 추정된다.
- 2024년 중국 대파 재배면적은 2023년 도매가격(3.3위안/kg)이 전년(5.1위안) 및 평년(3.8위안) 대비 각각 25.5%, 13.2% 하락하여 202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4.2. 2024년 상반기 전망

- 2024년 5월까지 출하되는 2023년산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2023년 정식기 가격이 상승하여 2022년산 대비 1.0% 증가하였다(전남도청).
 - 영광지역과 기타지역(해남지역)은 옥수수 등으로 작목전환과 돌려짓기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 5.3% 감소하였다.
 - 주산지인 신안과 진도지역은 2022년산 대비 각각 2.7%, 1.7% 증가하였다. 특히 진도 지역은 항공촬영 결과(고군면, 군내면, 의신면, 임회면, 지산면, 진도읍)에서도 전년(2022년)보다 1.7% 증가한 973ha로 집계되었다.

표 11-51. 2023년산 전남지역 겨울대파 전년(2022년산) 및 평년 대비 재배면적 증감률

단위: %

구 분		신안	진도	영광	기타	전체
증감률	전년	2.7	1.7	-3.4	-5.3	1.0
	평년	-0.8	-3.8	-10.0	0.2	-3.8

자료: 전남도청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2023. 12. 20), 겨울대파 출하시기는 2023년 여름철 생육기 기상악화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2023년과 평년 대비 다소 늦어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3년 하반기 가격이 2022년 대비 크게 상승하면서 농가의 높은 수취가격 기대 영향으로 포전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 1월 중순 기준, 겨울대파 생육은 2023년 12월 중순 이후 강풍과 한파, 폭설 영향으로 2023년 동기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 5~6월경 출하되는 봄대파 재배면적은 2023년 하반기 정식기 가격이 전년(2022년)과 평년 대비 크게 상승하여 2023년보다 1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별로 경기·충청지역 하우스 대파(10월 하순~11월 하순 정식)와 전북·영남지역 노지대파(10월 하순~11월 중순 정식) 모두 증가가 예상된다.
 - 경기 북부지역은 2024년 2~3월 가격에 따라 정식 의향이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52. 2024년 봄대파 재배면적 2023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	충청	전북	영남	전체
11.2	10.8	12.1	9.6	10.7

자료: 농업관측센터, 2023년 12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 2024년 상반기(1~4월) 가격은 겨울대파 출하량이 감소하여 2023년(1,678원/kg)과 평년(1,342원/kg) 동기 대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3월까지 정부 수급 대책에 따른 할당관세물량(3,000톤, 무관세)이 도입될 예정이고, 향후 기상악화(한파, 폭설 등) 영향이 적을 경우, 상반기 가격은 1월 가격 대비 추가 상승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5월 가격은 봄대파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2023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4.3. 중장기 전망

- 2024~2033년간 대파 재배면적은 인구 감소에 따른 1인당 소비량 감소, 생산비 상승 등으로 연평균 1.0% 감소하며, 2028년 1만 2천 ha, 2033년 1만 1천 ha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겨울대파 출하기(1~4월) 가격이 2023년과 평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4년산 재배면적은 2023년 대비 10.1% 증가한 1만 2천 ha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2033년간 대파 생산량은 재배면적의 연평균 감소폭(1.0%)이 단수 증가폭(0.4%)보다 커 2033년에는 32만 8천 톤 내외로 감소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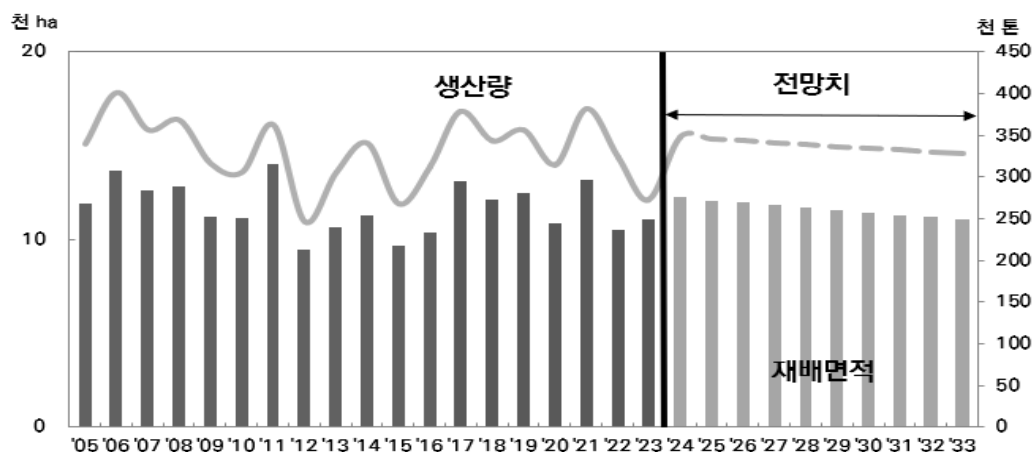
- 2024년 대파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2023년보다 증가하여 34만 8천 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 2024~2033년간 대파 수입량은 건조대파를 중심으로 2028년까지 연평균 0.7% 증가하면서 2033년에는 4만 4천 톤 내외가 예상된다.
- 2024~2033년간 대파 공급량은 38만 톤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급률은 2023년 86.2%로 작황이 부진하여 하락하였으나, 2024년 89.4%로 증가한 후 2033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53. 대파 중장기 수급 전망

구 분	단 위	2023	전 망		
			2024	2028	2033
재배면적	ha	11,116	12,238	11,696	11,021
총 공급량(A=B+C)	천 톤	316	389	382	372
국내 생산량(B)	천 톤	272	348	339	328
순수입량(C=D-E)	천 톤	44	41	43	44
수입량(D)	천 톤	44	41	43	44
수출량(E)	천 톤	0	0	0	0
자급률(B/A)	%	86.2	89.4	88.8	88.1

주: 2023년 생산량과 2024년 이후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통계청

그림 11-18. 대파 생산 동향 및 중장기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통계청

05

부록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5.1. 2000~2023년 양파 수급 동향

부표 11-1. 양파 생산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ha, kg/10a, 톤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00	16,773	5,176	868,097
2001	18,995	5,613	1,066,224
2002	15,314	6,092	932,978
2003	12,352	6,033	745,203
2004	15,563	6,090	947,797
2005	16,737	6,114	1,023,331
2006	15,315	5,809	889,619
2007	17,751	6,836	1,213,375
2008	15,392	6,725	1,035,076
2009	18,514	7,412	1,372,291
2010	22,113	6,384	1,411,646
2011	22,976	6,616	1,520,016
2012	20,965	5,703	1,195,737
2013	20,036	6,458	1,294,009
2014	23,911	6,649	1,589,957
2015	18,015	6,072	1,093,932
2016	19,896	6,528	1,298,749
2017	19,538	5,858	1,144,493
2018	26,425	5,756	1,520,969
2019	21,777	7,322	1,594,450
2020	17,930	7,474	1,340,134
2021	18,532	7,390	1,369,572
2022	17,521	6,605	1,157,223
2023	17,986	6,759	1,215,675

주 1) 2020~2023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2) 2022년산 재배면적은 조생종양파 산지폐기면적(194ha)을 포함한 면적 기준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1-2. 양파 품종별 생산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ha, kg/10a, 톤

연산	조생종			중만생종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00	1,642	5,577	91,574	15,131	5,132	776,523
2001	3,149	5,287	166,488	15,846	5,678	899,736
2002	2,496	5,488	136,980	12,818	6,210	795,998
2003	2,292	5,983	137,119	10,060	6,045	608,084
2004	2,769	6,242	172,844	12,794	6,057	774,953
2005	2,450	6,625	162,312	14,287	6,027	861,019
2006	2,599	5,363	139,380	12,716	5,900	750,239
2007	3,203	6,411	205,352	14,548	6,929	1,008,023
2008	1,852	6,340	117,417	13,540	6,777	917,659
2009	2,479	6,731	166,868	16,035	7,517	1,205,423
2010	2,561	5,681	145,490	19,552	6,476	1,266,156
2011	2,661	6,556	174,450	20,315	6,624	1,345,566
2012	2,275	5,808	132,135	18,690	5,691	1,063,602
2013	1,447	5,716	82,716	18,589	6,516	1,211,293
2014	1,999	6,821	136,353	21,912	6,634	1,453,604
2015	2,013	6,274	126,297	16,002	6,047	967,636
2016	2,990	6,297	188,278	16,906	6,569	1,110,471
2017	2,796	6,296	176,037	16,742	5,785	968,456
2018	3,577	5,838	208,809	22,849	5,743	1,312,160
2019	2,855	7,590	216,658	18,923	7,281	1,377,792
2020	2,683	7,578	203,318	15,247	7,456	1,136,816
2021	2,939	7,397	217,425	15,593	7,389	1,152,147
2022	2,975	7,261	216,004	14,546	6,471	941,219
2023	2,956	7,137	210,986	15,030	6,685	1,004,688

주: 2020~2023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1-3. 양파 수출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톤

연산		총 수출량			
		신선양파	건조양파	냉동양파	초산조제양파
2000	245	243	1	0	0
2001	3,374	3,374	0	0	0
2002	5,810	234	5,556	20	0
2003	296	68	227	0	0
2004	257	11	245	0	1
2005	320	75	246	0	0
2006	416	361	55	0	0
2007	1,238	1,172	66	0	0
2008	105	1	104	0	1
2009	10,131	9,230	888	12	1
2010	3,512	3,502	3	3	4
2011	760	749	0	10	0
2012	1,154	941	185	27	0
2013	799	798	1	0	0
2014	24,337	24,332	3	1	0
2015	224	224	0	0	0
2016	8,916	8,887	0	27	1
2017	582	550	1	27	3
2018	4,420	4,417	0	0	2
2019	49,584	49,445	139	0	0
2020	5,613	5,611	1	0	0
2021	10,056	10,046	1	1	7
2022	1,424	1,409	13	2	0
2023	106	94	2	10	0

주 1) 수출량은 건조양파, 냉동양파, 초산조제양파는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양파로 환산한 수치

2) 2023년산은 4~12월 누적 수출량

자료: 관세청

부표 11-4. 양파 수입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톤

연산	총 수입량				
		신선양파	건조양파	냉동양파	초산조제양파
2000	25,967	9,793	16,017	157	0
2001	4,818	832	3,690	295	2
2002	28,691	18,245	15,808	323	14
2003	98,726	85,996	11,072	1,653	6
2004	57,776	33,840	22,849	1,013	75
2005	46,621	11,730	34,489	347	54
2006	64,892	55,604	7,853	1,383	53
2007	33,659	7,842	24,139	1,556	122
2008	65,112	54,847	7,357	2,816	92
2009	22,246	2,788	16,618	2,745	94
2010	49,134	25,796	19,851	3,383	104
2011	20,916	7,369	10,149	3,332	67
2012	84,237	62,944	17,461	3,753	80
2013	64,996	36,264	21,407	7,274	52
2014	24,033	934	17,264	5,819	16
2015	214,878	181,593	24,550	8,710	25
2016	74,265	41,730	22,602	9,910	22
2017	181,400	145,979	24,042	11,365	14
2018	74,157	38,599	22,781	12,768	10
2019	58,650	18,894	28,077	11,661	18
2020	99,483	53,312	32,037	14,125	10
2021	64,248	10,502	37,382	16,359	6
2022	138,919	101,013	21,025	16,867	15
2023	113,902	86,707	15,830	11,356	9

주 1) 수입량은 건조양파, 냉동양파, 초산조제양파는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양파로 환산한 수치

2) 2023년산은 4~12월 누적 수입량

자료: 관세청

부표 11-5. 양파 공급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천 톤, %

구 분	공급량 (f=a+b+c-d-e)						자급률 (b/f)
		이월재고량(a)	생산량(b)	수입량(c)	수출량(d)	기말재고량(e)	
2000	883		868	26	0	11	98.3
2001	1,079	11	1,066	5	3		98.8
2002	956		933	29	6		97.6
2003	844		745	99	0		88.3
2004	1,006		948	58	0		94.3
2005	1,049		1,023	47	0	21	97.6
2006	976	21	890	65	0		91.2
2007	1,246		1,213	34	1		97.4
2008	1,100		1,035	65	0		94.1
2009	1,384		1,372	22	10		99.1
2010	1,454		1,412	49	4	3	97.1
2011	1,543	3	1,520	21	1		98.5
2012	1,278		1,196	84	1	1	93.6
2013	1,358		1,294	65	1	0	95.3
2014	1,546		1,590	24	24	44	102.8
2015	1,353	44	1,094	215	0		80.9
2016	1,364		1,299	74	9		95.2
2017	1,325		1,145	181	1		86.4
2018	1,590		1,521	74	5		95.7
2019	1,601		1,594	59	50	3	99.6
2020	1,423	3	1,340	99	6	13	94.1
2021	1,437	13	1,370	64	10		95.3
2022	1,281		1,143	139	1		89.4
2023(p)	1,347		1,216	137	0	5	90.2

주 1) 공급량은 이월재고·생산·수입량 합에 수출·기말재고량을 제외한 수치

2)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추정하였으며, 이월 재고량 및 기말재고량은 정부 비축물량 기준

3) 수출입량에는 신선양파, 건조양파, 냉동양파, 초산조제양파가 포함되며, 건조, 냉동, 초산조제의 경우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양파로 환산

4) 2022년산 생산량은 조생종양파 산지폐기면적(194ha)을 제외한 생산량 기준

5) 2023년산 수출입량에서 2024년 1~3월 물량은 평년 수준으로 가정하였으며, 기말재고는 정부 국내산 비축물량(5천 톤)을 기준으로 가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1-6. 양파 도매가격 동향(연산기준: 4월~익년 3월)

단위: 원/kg

연산	상품	중품
2000	533	409
2001	326	245
2002	669	530
2003	864	731
2004	626	503
2005	597	479
2006	878	752
2007	447	385
2008	945	850
2009	712	625
2010	1,026	866
2011	654	519
2012	1,206	1,043
2013	1,022	915
2014	560	447
2015	1,313	1,166
2016	1,001	881
2017	1,087	937
2018	711	496
2019	697	610
2020	1,214	1,070
2021	726	734
2022	1,307	1,034
2023	1,233	1,008

주: 2023년산은 4~12월 평균 명목가격 기준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부표 11-7. 중국 양파 생산 동향

단위: 천 ha, kg/10a, 천 톤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00	683	2,127	14,514
2001	739	2,090	15,452
2002	790	2,163	17,092
2003	820	2,216	18,180
2004	871	2,152	18,750
2005	922	2,143	19,759
2006	974	2,094	20,392
2007	1,026	2,084	21,378
2008	957	2,264	21,659
2009	976	2,248	21,935
2010	1,006	2,252	22,649
2011	1,041	2,208	22,988
2012	1,047	2,212	23,167
2013	1,053	2,213	23,289
2014	1,061	2,220	23,545
2015	1,098	2,227	24,449
2016	1,111	2,227	24,753
2017	1,121	2,231	25,009
2018	1,126	2,235	25,166
2019	1,139	2,237	25,471
2020	1,150	2,241	25,784
2021	1,162	2,191	25,463
2022	1,151	2,223	25,587

자료: FAO(2023.12.27.)

5.2. 2000~2023년 마늘 수급 동향

부표 11-8. 마늘 생산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ha, kg/10a, 톤

연 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00	44,941	1,056	474,388
2001	37,118	1,095	406,385
2002	33,153	1,190	394,482
2003	33,140	1,143	378,846
2004	30,237	1,183	357,824
2005	31,766	1,180	374,980
2006	28,594	1,159	331,379
2007	26,986	1,288	347,546
2008	28,416	1,321	375,464
2009	26,323	1,357	357,278
2010	22,414	1,212	271,561
2011	24,035	1,227	295,002
2012	28,278	1,199	339,113
2013	29,352	1,405	412,250
2014	25,062	1,412	353,761
2015	20,638	1,290	266,272
2016	20,759	1,327	275,549
2017	24,864	1,221	303,579
2018	28,351	1,170	331,741
2019	27,689	1,400	387,671
2020	25,372	1,432	363,432
2021	23,528	1,330	312,995
2022	23,686	1,228	290,824
2023	24,629	1,269	312,438

주: 2021~2023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1-9. 마늘 품종별 생산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ha, kg/10a, 톤

연 산	한지형			난지형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00	9,909			35,032		
2001	8,385			28,733		
2002	6,847			26,306		
2003	6,190			26,950		
2004	6,060			24,177		
2005	6,334			25,432		
2006	5,961			22,633		
2007	5,669			21,317		
2008	5,438			22,978		
2009	5,384			20,939		
2010	4,808	838	40,281	17,606	1,314	231,280
2011	5,537	790	43,745	18,498	1,358	251,257
2012	6,289	825	51,904	21,989	1,306	287,209
2013	6,185	981	60,676	23,167	1,518	351,574
2014	5,282	936	49,415	19,780	1,539	304,346
2015	4,759	896	42,637	15,879	1,408	223,635
2016	4,261	915	38,990	16,498	1,434	236,559
2017	5,304	823	43,667	19,560	1,329	259,912
2018	5,379	812	43,656	22,972	1,254	288,085
2019	5,084	867	44,055	22,605	1,520	343,615
2020	5,199	994	51,698	20,173	1,545	311,734
2021	4,757	908	43,187	18,771	1,437	269,808
2022	4,628	858	39,731	19,058	1,318	251,092
2023	4,581	868	39,764	20,048	1,360	272,674

주 1) 품종별 단위당 수확량 및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2021~2023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1-10. 마늘 수출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톤

연 산	총 수출량					
		깐마늘	통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
2000	7,097		6,793		9	295
2001	21,279	205	5,401	272	15,355	47
2002	187	14	80	4	34	55
2003	919	58	760	30	5	66
2004	359	36	224	1	16	82
2005	302	60	33	2	124	84
2006	478	2	407		4	65
2007	171	115	9	1	7	39
2008	226	61	74	5	75	12
2009	285	53	19	1	200	13
2010	205	17	38	40	75	35
2011	602	10	504	3	57	28
2012	836	4	781	3	12	36
2013	93	14	2	18	14	46
2014	138	57	5	17	18	41
2015	289	5	143	53	55	34
2016	105	19	8	27	21	30
2017	152	16	74	12	27	23
2018	127	10	45	10	41	21
2019	4,229	2,640	1,411	106	55	17
2020	1,905	1,682	106	46	51	20
2021	201	76	10	13	80	21
2022	208	74	6	20	90	18
2023	499	418	1	2	62	16

주 1) 수출량은 깐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에 수율을 적용하여 통마늘로 환산한 수치

2) 2023년산 수출량은 6~12월 누적 수출량

자료: 관세청

부표 11-11. 마늘 수입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톤

연 산		총 수입량				
		깐마늘	통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
2000	26,184	12	64	7,682	13,645	4,781
2001	26,395		12,618	10,515	179	3,082
2002	34,659	385	13,283	14,778	369	5,843
2003	53,805	4,086	14,483	24,587	2,831	7,817
2004	61,316	8,578	13,641	31,520	1,170	6,407
2005	42,969	1,751	9,625	23,027	3,781	4,786
2006	55,687	768	13,418	32,836	2,663	6,001
2007	70,747	3,193	10,007	44,913	3,096	9,538
2008	51,226	1,755	3,418	31,234	8,430	6,390
2009	37,256	31	5,964	25,025	95	6,141
2010	90,205	2,135	36,003	47,227	904	3,936
2011	92,031	2,020	32,330	50,951	2,505	4,224
2012	50,456	1,095	10,056	30,313	4,381	4,611
2013	53,753	1,360	1,005	42,129	4,178	5,082
2014	51,096	1,948	4,493	36,293	3,482	4,880
2015	76,926	2,619	30,355	38,892	811	4,249
2016	69,856	1,248	26,031	38,955	56	3,567
2017	51,109	594	3,781	42,658	228	3,848
2018	55,957	556	6,680	44,406	574	3,741
2019	40,297	235	791	35,230	293	3,747
2020	49,624	344	5,053	39,982	73	4,173
2021	53,902	2,115	8,018	39,424	615	3,729
2022	78,228	803	18,193	55,600	243	3,389
2023	22,491	224	284	19,936	149	1,899

주 1) 수입량은 깐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에 수율을 적용하여 통마늘로 환산한 수치

2) 2023년산 수입량은 6~12월 누적 수입량

자료: 관세청

부표 11-12. 마늘 공급 동향(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천 톤, %

연 산	공급량 (f=a+b+c-d-e)						자급률 (b/f)
		이월재고량 (a)	생산량 (b)	수입량 (c)	수출량 (d)	기말재고량 (e)	
2000	481	3	474	26	7	15	98.5
2001	421	15	406	26	21	6	96.6
2002	421	6	394	35	0	14	93.7
2003	440	14	379	54	1	6	86.2
2004	424	6	358	61	0	1	84.4
2005	418	1	375	43	0	1	89.8
2006	387	1	331	56	0	1	85.7
2007	413	1	348	71	0	6	84.1
2008	432	6	375	51	0	0	86.8
2009	394	0	357	37	0	0	90.6
2010	362	0	272	90	0	0	75.1
2011	386	0	295	92	1	0	76.3
2012	389	0	339	50	1	0	87.2
2013	451	0	412	54	0	15	91.4
2014	415	15	354	51	0	5	85.3
2015	345	5	266	77	0	3	77.2
2016	338	3	276	70	0	10	81.5
2017	356	10	304	51	0	9	85.4
2018	392	9	332	56	0	5	84.7
2019	425	5	388	40	4	4	91.3
2020	411	4	363	50	2	4	88.4
2021	371	4	313	54	0	0	84.4
2022	366	0	291	78	0	3	79.4
2023(p)	361	3	312	49	1	3	86.6

주 1) 공급량은 이월재고량·생산량·수입량 합에 수출량·기말재고량을 제외한 수치

2)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추정

3) 수출입량은 깬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마늘에 수율을 적용하여 통마늘로 환산한 수치

4) 2021~2023년산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이며, 2022~2023년산 기말재고는 정부비축물량 포함하여 평년 수준으로 가정

5) 2023년산 수출량과 수입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1-13. 마늘 도매가격 동향(명목가격, 연산기준: 6월~익년 5월)

단위: 원/kg

연 산	난지형 마늘 (상품 기준)	간마늘(상품 기준)		
			대서종	남도종
2000	1,661			
2001	1,845			
2002	1,959			
2003	2,456	4,546		
2004	2,244	3,530		
2005	2,041	3,405		
2006	2,290	3,748		
2007	2,104	3,542		
2008	1,779	3,153		
2009	2,483	4,049		
2010	5,454	7,142		
2011	3,861	5,897		
2012	3,937	5,969		
2013	2,746	4,140		
2014	3,362	4,750		
2015	5,346	7,194		
2016	6,169	7,246		
2017	5,855	6,556		
2018	5,286	5,835	5,714	6,441
2019	3,469	4,112	4,080	4,272
2020	4,488	6,686	6,698	6,615
2021	6,746	8,103	8,075	8,256
2022	6,981	8,174	8,119	8,476
2023	4,408	6,652	6,617	6,898

주: 2023년산은 6~12월 평균 가격이며, 전국 5대 도매시장(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평균 가격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표 11-14. 중국 마늘 생산 동향

단위: 천 ha, kg/10a, 천 톤

연 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00	560	1,337	7,486
2001	585	1,350	7,894
2002	627	1,447	9,080
2003	632	1,594	10,078
2004	638	1,661	10,593
2005	648	1,710	11,083
2006	657	1,762	11,568
2007	757	2,123	16,065
2008	822	2,233	18,357
2009	779	2,306	17,968
2010	804	2,307	18,549
2011	794	2,330	18,508
2012	800	2,310	18,492
2013	783	2,457	19,227
2014	791	2,533	20,047
2015	842	2,585	21,766
2016	805	2,525	20,326
2017	801	2,507	20,096
2018	825	2,506	20,675
2019	822	2,609	21,446
2020	821	2,621	21,510
2021	823	2,576	21,213
2022	826	2,591	21,391

자료: FAO(2023.12.27.)

5.3. 2000~2023년 건고추 수급 동향

부표 11-15. 건고추 생산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ha, kg/10a, 톤

연산	면적	단수	생산량
2000	74,471	260	193,786
2001	70,736	255	180,120
2002	72,104	267	192,753
2003	57,502	230	132,010
2004	61,894	250	154,962
2005	61,299	263	161,380
2006	53,097	220	116,914
2007	54,876	292	160,398
2008	48,825	253	123,509
2009	44,817	262	117,324
2010	44,584	214	95,391
2011	42,574	181	77,110
2012	45,459	229	104,146
2013	45,360	260	117,816
2014	36,120	236	85,068
2015	34,514	283	97,697
2016	32,181	266	85,459
2017	28,337	197	55,714
2018	28,824	248	71,509
2019	31,644	248	78,437
2020	31,146	193	60,076
2021	33,373	239	79,887
2022	29,770	211	62,916
2023	27,132	221	60,018

주: 2021~2023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1-16. 건고추 수출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톤

연산	총 수출량						
		건고추류	냉동고추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고추장	김치
2000	6,958	3,127	0	1,326	886	497	1,123
2001	5,309	1,734	0	1,231	655	466	1,224
2002	6,530	2,063	3	1,783	698	489	1,494
2003	7,418	2,340	4	1,841	980	641	1,612
2004	7,893	2,342	1	1,719	1,419	747	1,664
2005	8,500	2,540	0	1,891	2,153	690	1,225
2006	9,788	2,724	3	1,895	3,234	693	1,239
2007	9,521	3,208	0	1,215	3,324	544	1,231
2008	10,077	3,158	0	1,964	2,876	760	1,320
2009	12,383	3,195	0	2,349	4,480	952	1,406
2010	14,395	3,273	2	3,156	5,561	1,096	1,307
2011	16,014	3,626	1	3,536	6,364	1,174	1,312
2012	18,203	3,972	1	4,064	7,660	1,248	1,258
2013	19,696	3,639	0	3,499	9,929	1,449	1,181
2014	21,899	3,887	0	3,113	12,339	1,456	1,103
2015	24,407	4,211	0	2,971	14,425	1,701	1,099
2016	27,627	3,911	0	3,389	17,415	1,801	1,111
2017	29,316	3,858	0	3,666	18,586	1,972	1,234
2018	33,421	4,821	1	4,175	20,859	2,173	1,392
2019	41,593	5,188	13	4,523	27,685	2,487	1,697
2020	51,973	5,354	1	4,509	37,366	2,783	1,959
2021	53,401	6,247	0	5,239	36,926	2,999	1,990
2022	49,648	5,325	0	5,124	34,237	2,976	1,985
2023	22,362	2,232	0	2,072	15,929	1,308	820

주 1) 수출량은 기타소스, 혼합조미료, 냉동고추, 고추장, 김치에 포함되어있는 고춧가루를 수출 적용을 통해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과 건고추류 수출량을 합한 수치이며, 휴대용 반출량은 미포함

2) 고춧가루도 건고추로 환산하여 건고추류 수출량에 포함

3) 2023년산은 8~12월 누적 수출량

자료: 관세청

부표 11-17. 건고추 수입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톤

연산		총 수입량					
		건고추류	냉동고추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고추장	김치
2000	29,915	8,131	1,032	5,826	14,880	16	30
2001	40,837	10,835	2,534	7,156	20,299	8	4
2002	36,326	6,928	2,160	5,218	21,465	7	548
2003	65,093	17,089	12,355	5,058	28,404	34	2,154
2004	76,015	13,664	18,968	5,243	33,159	101	4,879
2005	67,738	10,809	16,132	4,913	29,010	65	6,809
2006	82,664	9,550	25,755	5,105	33,225	88	8,940
2007	87,619	9,909	22,480	5,351	37,783	138	11,959
2008	86,328	9,458	30,307	5,196	33,361	84	7,922
2009	81,151	7,650	25,919	4,972	35,085	68	7,457
2010	101,463	11,735	34,139	5,226	39,466	73	10,823
2011	120,251	20,445	41,323	5,149	42,939	67	10,328
2012	96,753	5,235	37,777	4,127	39,106	42	10,466
2013	96,407	6,543	32,359	4,256	43,199	35	10,015
2014	105,707	8,009	37,369	4,406	45,587	27	10,310
2015	105,636	6,093	37,595	5,150	45,786	23	10,990
2016	110,179	4,087	42,418	4,043	46,840	18	12,774
2017	122,423	4,135	49,134	2,638	53,138	14	13,365
2018	124,510	5,095	47,179	1,861	56,269	18	14,087
2019	123,343	5,730	48,599	2,316	53,140	21	13,538
2020	133,458	7,315	51,924	2,849	58,746	21	12,602
2021	130,811	8,667	43,179	3,058	64,575	24	11,309
2022	135,259	7,468	42,802	3,001	68,566	14	13,407
2023	60,242	5,624	17,539	1,358	29,932	5	5,784

주 1) 수입량은 기타소스, 혼합조미료, 냉동고추, 고추장, 김치에 포함되어 있는 고춧가루를 수출 적용을 통해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과 건고추류 수입량을 합한 수치이며, 휴대용 반입량은 미포함

2) 고춧가루도 건고추로 환산하여 건고추류 수입량에 포함

3) 2023년산은 8~12월 누적 수입량

자료: 관세청

부표 11-18. 건고추 공급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천 톤, %

연산		공급량 (f=a+b+c-d-e)					자급률 (b/f)
		이월재고량 (a)	생산량 (b)	수입량 (c)	수출량 (d)	기말재고량 (e)	
2000	219	3	194	30	7	1	88.6
2001	207	1	180	41	5	10	87.2
2002	215	10	193	36	7	18	89.8
2003	207	18	132	65	7	1	63.9
2004	220	1	155	76	8	4	70.4
2005	222	4	161	68	8	3	72.8
2006	190	3	117	83	10	3	61.6
2007	240	3	160	88	10	1	66.7
2008	201	1	124	86	10		61.5
2009	185		117	81	12	1	63.4
2010	179	1	95	101	14	4	53.2
2011	184	4	77	120	16	1	41.8
2012	182	1	104	97	18	2	57.3
2013	187	2	118	96	20	10	63.2
2014	171	10	85	106	22	8	49.8
2015	173	8	98	106	24	14	56.5
2016	171	14	85	110	28	11	50.0
2017	154	11	56	122	29	6	36.2
2018	164	6	72	125	33	5	43.7
2019	160	5	78	123	42	6	49.1
2020	145	6	60	133	52	2	41.5
2021	151	2	80	131	53	9	53.0
2022	151	9	63	135	50	7	41.8
2023(p)	150	7	60	142	53	6	40.1

주 1) 공급량은 이월재고·생산·수입량 합에 수출·기말재고량을 제외한 수치

2)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추정

3) 2023년산 수출량과 수입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추정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1 - 19.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연산기준: 8월~익년 7월)

단위: 원/600g

연산	상품	중품
2000	4,637	4,332
2001	4,406	4,088
2002	3,737	3,404
2003	6,084	5,691
2004	5,225	4,863
2005	4,448	4,142
2006	6,079	5,629
2007	4,652	4,206
2008	5,768	5,313
2009	5,723	5,272
2010	8,306	7,747
2011	13,835	12,807
2012	9,732	8,732
2013	6,714	5,815
2014	8,369	7,469
2015	7,750	6,896
2016	5,898	5,018
2017	11,952	11,053
2018	12,285	10,946
2019	8,597	7,651
2020	15,966	14,750
2021	11,259	10,104
2022	12,712	11,423
2023	13,841	12,696

주 1) 전국 5대 도매시장(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평균 가격

2) 2023년은 8~12월 평균 가격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부표 11-20. 중국 건고추 생산 동향

단위: 천 ha, kg/10a, 천 톤

연산	면적	단수	생산량
2000	35	606	212
2001	35	613	215
2002	36	620	220
2003	36	639	230
2004	37	641	235
2005	37	658	240
2006	38	645	245
2007	40	625	250
2008	41	615	252
2009	42	619	260
2010	43	616	265
2011	43	644	277
2012	43	674	290
2013	44	682	300
2014	45	683	307
2015	46	668	306
2016	46	670	309
2017	47	672	315
2018	48	674	321
2019	48	675	326
2020	46	668	308
2021	47	662	312
2022	48	661	318

자료: FAO(2023.12.27.)

5.4. 2000~2023년 대파 수급 동향

부표 11-21. 대파 생산 동향

단위: ha, kg/10a, 톤

연도	재배면적	단 수	생산량
2000	13,768	2,874	395,687
2001	13,519	2,873	388,406
2002	13,331	2,842	378,849
2003	13,315	2,905	386,798
2004	16,346	2,992	489,136
2005	11,916	2,847	339,289
2006	13,707	2,926	401,029
2007	12,591	2,830	356,286
2008	12,821	2,870	367,936
2009	11,227	2,811	315,638
2010	11,161	2,735	305,289
2011	14,023	2,585	362,431
2012	9,466	2,596	245,757
2013	10,635	2,866	304,817
2014	11,286	3,015	340,229
2015	9,655	2,769	267,343
2016	10,396	3,001	312,009
2017	13,122	2,887	378,827
2018	12,115	2,838	343,869
2019	12,486	2,850	355,931
2020	10,883	2,901	314,685
2021	13,174	2,939	387,184
2022	10,550	3,072	324,096
2023	11,116	2,451	272,453

주: 2023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 단수를 적용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1-22. 대파 수출 동향

단위: 톤

연도	총 수출량			
		신선대파	건조대파	냉동대파
2000	327	3	303	20
2001	353	3	182	168
2002	231	17	106	109
2003	115	5	-	110
2004	592	184	143	265
2005	204	94	49	61
2006	123	1	97	26
2007	26	1	14	11
2008	891	0	34	856
2009	127	6	-	121
2010	723	19	512	192
2011	181	1	161	19
2012	353	8	345	-
2013	15	0	14	-
2014	16	7	7	2
2015	22	22	-	-
2016	3	2	-	1
2017	108	2	106	0
2018	15	1	14	-
2019	65	1	64	-
2020	11	9	1	1
2021	217	15	202	-
2022	25	18	6	1
2023	29	18	5	6

주: 신선대파 HS코드는 0703-90-9000(양파·쪽파·마늘·리크 외 기타 파속의 신선 또는 냉장채소), 0703-90-2000(선대파·쪽파), 건조대파 HS코드는 0712-90-2030(파), 냉동대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통계와 2022년은 신설된 HS코드 0710-80-9010(냉동채소기타)를 사용함. 총수출량은 건조대파에 수출을 적용하여 신선대파로 환산한 물량

자료: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표 11-23. 대파 수입 동향

단위: 톤

연도		총 수입량		
		신선대파	건조대파	냉동대파
2000	39,439	529	37,514	1,395
2001	48,754	363	44,952	3,439
2002	43,634	131	38,684	4,818
2003	47,303	3,293	41,112	2,898
2004	50,566	1,098	46,026	3,441
2005	45,266	101	41,126	4,040
2006	50,379	9,280	35,573	5,526
2007	49,073	2,395	40,427	6,251
2008	33,591	2,032	25,260	6,300
2009	30,222	28	23,743	6,450
2010	38,339	3,074	25,863	9,402
2011	51,384	16,943	26,406	8,035
2012	35,374	4,610	22,124	8,640
2013	42,995	8,374	25,402	9,219
2014	30,616	1,226	20,102	9,289
2015	33,250	3,700	19,442	10,109
2016	33,491	3,939	18,559	10,993
2017	38,776	8,383	17,434	12,958
2018	43,985	7,354	22,191	14,441
2019	32,499	5,632	13,614	13,253
2020	42,509	5,532	21,759	15,218
2021	44,811	8,272	20,686	15,854
2022	39,404	2,586	20,782	16,036
2023	43,671	8,469	19,000	16,202

주: 신선대파 HS코드는 0703-90-9000(양파·쪽파·마늘·리크 외 기타 파속의 신선 또는 냉장채소), 0703-90-2000(선대파·쪽파), 건조대파 HS코드는 0712-90-2030(파), 냉동대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통계와 2022년은 신설된 HS코드 0710-80-9010(냉동채소기타)를 사용함. 총수입량은 건조대파에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대파로 환산한 물량

자료: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부표 11-24. 대파 공급 동향

단위: 톤, %

연도	총 공급량 (e=a+d)	국내 생산량 (a)	순수입량 (d=b-c)	수입량 (b)	수출량 (c)	자급률 (a/e)
2000	434,799	395,687	39,112	39,439	327	91.0
2001	436,808	388,406	48,402	48,754	353	88.9
2002	422,252	378,849	43,403	43,634	231	89.7
2003	433,986	386,798	47,188	47,303	115	89.1
2004	539,110	489,136	49,974	50,566	592	90.6
2005	384,351	339,289	45,062	45,266	204	88.2
2006	451,284	401,029	50,255	50,379	123	88.8
2007	405,333	356,286	49,047	49,073	26	87.9
2008	400,637	367,936	32,701	33,591	891	91.6
2009	345,733	315,638	30,095	30,222	127	91.3
2010	342,906	305,289	37,617	38,339	723	88.8
2011	413,634	362,431	51,203	51,384	181	87.6
2012	280,778	245,757	35,021	35,374	353	87.4
2013	347,798	304,817	42,981	42,995	15	87.6
2014	370,829	340,229	30,600	30,616	16	91.7
2015	300,571	267,343	33,228	33,250	22	88.9
2016	345,497	312,009	33,488	33,491	3	90.3
2017	417,494	378,827	38,667	38,776	108	90.7
2018	387,840	343,869	43,971	43,985	15	88.7
2019	388,413	355,931	32,482	32,547	65	91.6
2020	357,183	314,685	42,498	42,509	11	88.1
2021	431,778	387,184	44,594	44,811	217	89.7
2022	363,375	324,096	39,379	39,404	25	89.2
2023	316,096	272,453	43,642	43,671	29	86.2

주 1) 2023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 수출입 물량중 건조대파는 신선대파로 환산(수율 0.07% 적용)한 수치

3) 자급률은 생산량을 공급량으로 나누어 준 값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부표 11-25. 대파 도매 가격 동향

단위: 원/kg

연도	상품	중품
2001	779	619
2002	852	654
2003	1,438	1,194
2004	930	769
2005	1,002	852
2006	1,225	1,059
2007	1,040	883
2008	954	811
2009	1,111	951
2010	2,010	1,732
2011	1,293	1,091
2012	1,733	1,469
2013	1,479	1,275
2014	975	814
2015	1,685	1,436
2016	1,972	1,653
2017	1,700	1,394
2018	1,676	1,360
2019	1,365	1,097
2020	1,731	1,442
2021	2,367	2,076
2022	1,603	1,355
2023	2,132	1,779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부표 11-26. 중국 대파 생산 동향

단위: 천 ha, 천 톤

연도	재배면적	리크 (Leeks)	골파 (Onions, shallots, green)	생산량	리크 (Leeks)	골파 (Onions, shallots, green)
2000	21	4	17	492	82	410
2001	22	4	19	515	85	430
2002	23	4	19	643	96	548
2003	24	4	20	749	105	644
2004	24	4	21	816	112	704
2005	25	4	21	812	107	704
2006	27	5	23	918	125	794
2007	29	5	24	936	126	810
2008	30	5	25	963	127	836
2009	32	5	27	1,023	135	888
2010	31	5	26	1,042	141	901
2011	31	5	26	1,072	149	924
2012	31	5	26	1,074	152	922
2013	32	5	26	1,091	153	938
2014	32	6	27	1,108	156	951
2015	34	6	28	1,166	158	1,008
2016	33	5	27	1,105	140	965
2017	33	6	27	1,121	142	979
2018	34	6	28	1,141	144	998
2019	33	6	27	1,116	143	972
2020	32	6	27	1,115	142	973
2021	33	6	27	1,119	141	978
2022	33	5	27	1,113	140	973

자료: FAO(2023.12.27.)

